소년단

1962. 2

시 공화국 기'발 아래

윤 동향

맑게 닦은 유리창 안에
기'발 하나가 놓여 있다.
총탄에 끄슬려 그 색갈 이미 낡았고
그 모양 이미 기'발이 아니건만

아이들아 잊지말라
이 기'발에 담긴 이야기
이 기'발 목숨으로 지킨
인민군 용사들의 거룩한 이야기를

기'발은 말한다.
이 기'발의 주인들
아 기'발과 함께 어떻게 싸웠는가를
그네들 어떻게 조국을 지켜 냈는가를

이 기'발 날리며 나아가던 소대 기수
날아 오는 적탄에 그만 쓰러졌으나
기'발은 한시도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소대원들 끝까지 이 기'발 놓지 않았다.

마지막 용사의 손에 이르기까지
원쑤를 짓부시며 진격하던 기'발
가칠봉 상상봉에
포연을 뚫고 거연히 솟아 오르던 기'발

아이들아 잊지 말자
이 기'발 아래 피 흘린 가칠봉 영웅들을
우리에게 빛나는 기'발—
승리의 기'발을 넘겨 준 인민군 용사들을

아 백두 밀림에 날리던
붉은 기'발과 함께
조국의 푸른 하늘에
힘차게 휘날리는 공화국 기'발

이 기'발 아래
우리는 배워 간다.
영웅들을 따라서
이 기'발 아래
우리는 나아간다, 천리마 조국을 노래 부르며.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1962년 2월호 내용

피를 나눈 동무들

황 순 희

그림 유 환기

소년단원 동무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친 형제처럼 서로 자기 동무를 도와 가며 생활하여 나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작년 12 월에 소년 신문과 민청 신문에서 《동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미제 원쑤놈들에게 두 발을 빼앗긴 창식이를 3 년을 하루와 같이 업고 다녔고 그를 최우등생이 되기까지 도와 준 백 광선 동무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몹시 뜨겁게 하였습니다. 동무를 그처럼 도운 백 광선 동무의 이야기에 감동된 나는 지금도 28 년 전 일이지만 아동단 시절에 혁명 동지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쳐 가며 동무를 도와 준 금옥이와 봉순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우리 분단에는 최 금식이란 동무가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였지만 금식이네는 더 어려워· 겨울이 되여도 베 적삼 하나 변변히 입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금식이가 추워하는 것을 본 봉순이는 자기 웃적삼을, 금옥이는 치마를 벗어서 금식이에게 주었습니다.

1934년 겨울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인민들과 아동단원들은 혁명 정부를 따라 왕청현 쓰광대로 이동하고 소배채거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유격대원들과 여섯 명의 아동단원들이 며칠 더 남아 있게 되였습니다. 그 중에는 봉순이와 금옥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보초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토벌대》놈들이 어떻게 기미를 알았는지 우리가 보초 선 곳을 불의에 공격하여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류탄 3 개와 곤봉 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들은 《토벌대》 놈들이 가까이 다가 왔을 때 수류탄을 숯 불에 파묻고 깜쪽같이 피하였습니다. 《토벌대》놈들이 보초막 있는 데까지 오자 수류탄은 꽝! 하고 터져 왜놈들을 무더기로 쓸어 눕혔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들이 보초 서던 앞산에서도 총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곧 유격대 아저씨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개 같은 《토벌대》 놈들의 시체만 널려 있을 뿐 벌써 유격대 아저씨들은 다른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유격대 아저씨들이 간 곳을 모르는 우리들은 산 속에 남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눈 우에 가랑'잎을 깔고 모여 앉아 쓰광대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동무들! 눈보라 휘몰아 치고 며칠씩 굶으면서 한 번도 가본 일 없는 쓰광대를 찾아 떠난 우리들에게 어떤 곤난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유격 근거지에도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배낭 속에는 한 끼 분의 식량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석냥까지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사정 없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 내며 서로 눈을 쥐여서는 동무들 입에 넣어 주며 자기 옷과 머리 수건을 벗어 얼어 부은 발에 감아 주며 앞으로만 걸어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였습니다. 우리는 주림과 추위를 더는 이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봉순이를 업고 가던 금옥이는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붉은 피를 그의 입에 대였습니다. 자기의 혁명 동지를 사랑하는 금옥의 붉은 피는 봉순의 온 몸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 낟알 한 알 먹지 못하고 주림과 추위와 싸워 오던 봉순이를 비롯한 두 동무가 끝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금옥이와 나도 정신이 아찔아찔하여지며 더는 걷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눈 우에 쓰러진 금옥이를 안아 일쿠던 나는 정신이 핑그르 돌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눈을 뜬 곳은 따뜻한 온돌방이였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로부터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이 우리들을 찾아 떠났다는 일과 나 혼자만이 살아 남게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목이 메여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28 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동무를 위해서는 자기의 피도 아끼지 않고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무를 도운 금옥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금옥이와 봉순이는 항일 빨찌산들과 아동단원들이 그처럼 바라던 사회인 사회주의 지상 락원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무를 돕고 사랑하는 그들의 참된 마음은 오늘 그 대로 우리 소년단원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붉게 꽃피여 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동무들이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 있는 대로 항상 동무를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며 어렸을 때부터 서로 돕고 이끌어 화목하게 지내며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품성을 길러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충직한 나 어린 전사가 되여 주기 바랍니다.

왕소년을 아동단에 인입하기까지

—항일 빨찌산 투사 최 광 선생의 회상기에서—

1933년 봄! 항일 빨찌산 투사 최 광 선생님이 공청 조직의 위임을 받고 적 통치 구역인 라자구에서 아동단 사업을 지도하던 때의 이야기다.

라자구에는 놈들의 군대와 경계가 심한 관계로 아동단 사업은 유격 근거지에서와는 전혀 달랐다.

라자구에는 지역별로 분대가 조직되여 있었고 현 아동국과 구 공청으로부터 과업이 내리면 분대를 찾아 다니면서 분공도 주고 회의도 지도해야 했다.

입단 문제도 아동 국장의 참가하에 분대들에서 취급하였다.

(1) 최 광 선생님이 라자구로 간지 수개월 후인 1934년 초였다. 현 아동국과 구 공청으로부터 중국 소년들을 광범히 입단시키라는 과업을 받았다.

그 때로부터 최 광 선생님은 중국 소년들을 늘 세심히 관찰하였다. 선생님은 자도하자에 있는 구 공청 위원회에 오가는 길'가의 허줄한 중국 농가에서 근면하고 령리해 보이는 한 소년을 발견하였다.

(2) 어느 날 선생님은 일부러 이 집에 들며서 물 한 그릇을 청하였다. 그리고 그 소년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헤여졌다. 이렇게 몇 번 거듭하는 가운데 선생님은 그 소년과 친하게 되였고 그의 아버지와도 낯을 익히게 되였다.

(3) 바로 이 소년이 이야기의 주인공 왕 동무이다.

그는 지주의 소작 살이하는 농가에서 해마다 가난과 굶주림에 쪼들리며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왕 동무를 훌륭한 아동단원으로 이끌어 주리라.》

이렇게 속다짐한 선생님은 더욱 자주 왕 동무한테 들며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4) 선생님이 왕 동무를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였을 때였다. 라자구와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집 소년들은 모두 중국인 자본가가 경영하는 양조 공장에 계절 로동자로 들어 갔다.

왕 동무도 들어 갔었다.

이리하여 선생님도 일부러 공장에 들어 가 왕 동무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그를 교양하였다.

(5) 공장에 들어 간 소년들은 정말 힘에 넘치는 일에 시달렸다.

환기 장치도 없는 무덥고 어두운 방에서 온종일 매'돌을 돌리고 나면 집으로 돌아 갈 기운조차 없었다.

게다가 감독놈은 제깍하면 채찍으로 소년들을 막 후며 갈기였다.

공장주놈은 하루에 30전씩 주던 임금도 돈 대신 술로 주었다.

생활에서 더욱 곤난을 받게되면서 소년 로동자들 속에서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바로 이 때 선생님은 상급으로부터 동맹 파업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비가 억수로 퍼붓는 어느 날 저녁 때였다.

《술 안 사겠어요? 술이요.》

왕 동무는 당장 래일 먹을 쌀을 사기 위하여 임금으로 받은 술을 팔며 거리로 나왔다.

이 때 선생님은 왕 동무한테 달려 가 같이 걸으면서 공장주놈이 임금을 술로 내 주는 착취의 본질을 차근 차근 이야기해 주고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동맹 파업에 대한 계획을 알려 주었다.

(7) 드디어 파업은 시작 되였다. 300 여 명의 소년 로동자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게 되여 공장은 멎고 말았다. 급해맞은 공장주놈은 경찰놈들을 끌어 들여 위협하는 한편 앞잡이들을 내세워 의지가 약한 소년들을 꾀여 내려고 미쳐 날뛰였다.

(8) 파업을 시작한지 사흘째되는 아침이였다. 공장주놈의 꾀임에 넘어가 공장으로 나오는 몇몇 중국 소년들이 있었다. 선생님은 그들을 설복시켜 집으로 돌려 보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왕 동무가 공장을 향해

맥 없이 허벅허벅 걸어 오고 있었다.

《왕 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아버지가…》 하고 왕 동무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왕 동무의 아버지는 왕 동무가 사흘씩이나 공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일하기 싫어한다고 된 욕을 해 가며 욱다짐으로 그를 공장에 쫓아냈던 것이다.

(9) 최 광 선생님은 그달음으로 왕 동무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찾아 갔다.

선생님은 공장주놈의 악독한 착취상을 폭로하고 파업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었다.

그리고 왕 동무의 옷을 벗기고 감독놈에게 얻어 맞은 자리를 보여 주었다.

등에 엉킨 상처를 본 그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껴 안았다.

《어느 놈이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이 짐승마도 못한 놈들…》

(10) 이윽고 그의 아버지도 깨달았다.

《임자 말이 옳았네! 아무 것도 모르는 이 늙은 것이 한 짓을 탓하지 말아 주게!》

가난하고 소박한 왕 동무의 아버지가 투쟁을 리해해 준 데 대하여 선생님은 너무나 고마워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11) 파업을 일으킨지 나흘째 되던 날! 소년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못이겨 공장주놈은 드디어 임금을 5전 올리고 술로 주던 임금도 돈으로 준다는 광고를 내 붙이고야 말았다.

소년들은 서로 붙안고 첫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12) 첫 시련을 통하여 각성되고 단련된 왕 동무는 드디어 아동단원으로 입단되였다. 그리고 왕 동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수 많은 중국 소년들이 아동단에 들어 왔다.

그 후 왕 동무는 라자구 아동단 구위원으로 훌륭히 활동하였다.

작업반의 아들

—평남도 강서군 강선 중학교 단 제 29 분단 (인민반 3학년) 리 호춘 동무에 대한 이야기—

김 준 규

리 호춘 동무의 앞 가슴에는 소년단 휘장과 나란히 천리마 휘장이 빛나고 있다.

《소년단원이 어떻게 천리마 휘장을 타나?》 하고 동무들은 놀랄 것이다.

호춘이는 이 천리마 휘장을 강선 제강소 분괴 직장 압연가 천리마 청년 작업반 아저씨들과 함께 탔다.

그럼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가.

불'길 속에서

호춘이가 2 학년 때 어느 날 산수 시간이였다.

《아버지가 뭐랬어요? 공부를 잘하여 장차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시잖았어요.》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호춘이는 눈물을 북북 씻으며 앉았다.

그는 숙제를 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산수 시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분단 위원장인 박 병국이와 호춘이네 반장인 고 동선이가 호춘이의 책 가방을 메고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 갔다. 호춘이는 어데 가고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어두 공부를 잘해야 할 놈인데, 그 앤 불'길 속에서 자란 애라우.》 하고 할머니는 애가 타시는 듯 선생님을 바라보며 호춘이가 자란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1950년 10월에 호춘이네가 살고 있던 강원도 철원군 북면 혜산리 마을에도 미제 원쑤놈들이 기여 들었다.

이 때 호춘이는 아직 어머니의 배'속에 있었다 미제 원쑤들은 마을의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었다. 호춘이의 어머니도 놈들께 끌려 갔다. 미제 원쑤놈들은 잡아 가둔 사람들을 생매장 하자고 피 묻은 총'부리로 마을 사람들을 구뎅이 파기에 내 몰았다.

구뎅이 파기에 끌려 나가던 호춘이의 할아버지는 이가 갈리고 두주먹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참다 못해 《이 악당 놈들아 날 죽여라!》 하면서 놈들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원쑤들은 미친 개처럼 달려 들어 할아버지를 사정 없이 총탁으로 때리고 발'길로 찼다.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놈들의 포승에 묶이여 갔다.

이 날 밤이 이슥해지자 멀리서 따발총 소리가 가까와 왔다.

이윽하여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원쑤를 무찌르며 마을에 왔다. 갇히였던 할아버지와 어머니도 목이 메게 만세를 부르며 나왔다.

마을은 해방되고 원쑤들이 도망쳐 간후 호춘이가 세상에 태여 났다.

호춘이는 불'길 속에서 자라야 했다. 난지 몇 달 안되는 어느 날 밤이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잠을 깼을 때 집은 벌써 원쑤놈들이 뿌린 소이탄에 타고 있었다. 호춘이는 집을 뛰쳐 나오는 어머니의 마른 가슴을 파며 울었다. 나서 일곱달 만에 그는 더욱 큰 불행을 만났다. 강'가에 빨래하려 나갔던 어머니가 원쑤의 폭격에 맞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님, 어머님 호춘이를 잘 키워 주세요.》 이 한 마디를 남기고 그만 숨을 거두었다.

아직 《엄마》라는 말조차 채 외우지 못하는 호춘이에게서 원쑤들은 어머니를 영영 빼앗아 갔다.

호춘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났다. 호춘이가 여섯 살이 되던 해였다. 인민 군대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앞 가슴에 번쩍번쩍 훈장을 달고 제대되여 돌아 왔다. 《아버지》란 말을 처음 배운 호춘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훈장 단 아버지를 자랑하며 좋아했다.

아버지는 강선 제강소에서 압연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저녁마다 호춘이네 집에서는 행복한 웃음 꽃이 피였다.

어느듯 호춘이는 학교에 입학하고 1959 년 6월에는 영예로운 소년단원이 되였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 오시면 호춘이에게 공장 이야기도 들려 주시고 공부도 가르쳤다. 당 분조장인 아버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였다. 호춘이는 늘 이런 좋은 아버지를 동무들에게 자랑했다.

어느 날 산수 시험에서 5 점을 받고 너무도 기뻐 《아버지!》 하고 부르며 뛰여든 호춘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전선에서 부상 당한 상처가 도져 며칠째 앓고 있던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 했을 때였다.

어데 가 놀다가 와서 밖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호춘이가 문을 열고 불쑥 들어 섰다.

《호춘아 너의 아버지, 어머닌…》 불끈 불끈 두 주먹을 틀어 쥐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병국이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의 곁에 놓인 자기의 책 가방을 어리둥절해 보고 있던 호춘이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에 그만 울음이 칵 북바쳤다.

《자 호춘이! 1 반 동무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하고 선생님이 호춘이에게 붉은 넥타이를 갈아 매여 줬다.

《분단 동무들 앞에서 매 주자고 했는데 네가 없어 가지고 왔어.》 하고 동선이도 일어나 말했다.

분단 동무들은 호춘이의 색 낡은 넥타이를 볼 때마다 그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오늘

까지 자라 온 동무인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분단 동무들의 사랑 속에서

호춘이가 자라온 이야기는 곧 분단 동무들에게 알려졌다.

아이들의 마음은 금시에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로 북바쳤다.

반장인 고 동선이는 우선 반실을 호춘이네 집으로 옮겼다.

이 때부터 호춘이네 집에는 날마다 《호춘아!》《호춘아!》하고 부르며 아이들이 모여 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군 한다.

밝은 방 안에서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 아래에 옹기 종기 모여 앉아 공부하는 반 동무들을 볼 때마다

《참 기특한 애들이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해 하셨다.

동선이는 늘 《할머니, 호춘이랑 함께 자도 되나요?》하고 묻고는 호춘이와 함께 자면서 그의 학습을 도왔다.

아침에 일어 나면 호춘이를 데리고 할머니를 도와 물도 깃고 할아버지를 도와 마당을 깨끗이 쓸군 했다.

반 동무들은 호춘이의 옷가지들까지 서로 번갈아 자기들 집에 가져다 빨아 오군 했다.

반 동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호춘이에게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미제 원쑤 놈들에 대한 앙갚음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호춘이가 웃으면 반 동무들도 함께 기뻐하고 반 동무들이 즐거워 하면 호춘이도 좋아 했다. 어느 하루 저녁에 반 동무들이 반실에 오니 호춘이와 고 용현 동무가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데 갔는지 모르고 계셨다. 반 동무들은 모두 이상스레 생각하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렸겠구나!》하고 벌씬 웃으며 두 동무가 들어 섰다. 용현이는 의사인 자기 아버지에게 호춘이를 데리고 가서 약을 타 온 것이였다.

가끔 가다 호춘이가 앓는 것을 본 용현이는 호춘이 할머니 한테서 그가 어린애 때 젖을 못 먹어 아직까지 영향이 있다는

호춘이(왼편)는 언제나 동무들과 함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넌 참 좋은 일을 생각했어.》하고 동선이는 용현이를 칭찬하고 경쟁 도표에 붉은 별을 하나 올려 줬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동무들과 함께 배우며 생활하는 호춘이는 날마다 달라져 갔다. 그는 차츰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성을 냈다. 그리하여 날마다 붉은 별이 늘고 분단 벽보엔 자주 호춘이의 이름이 났다.

반 동무들은 이 때마다 손'벽을 치며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춘이가 앓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반 동무들은 병원에 찾아 갔다. 의사 선생님은 열흘은 걸려야 퇴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곧 반 모임을 열고 호춘이를 도와 줄 계획을 세웠다. 그후 간호원 누나들은 날마다 호춘이네 반 동무들을 만났다.

《호춘이에게 이걸 전해 주세요.》하면서 사과, 계란을 가져 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림 이야기 책과 곱게 베낀 학습장을 가져 오는 애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간호원 누나는 《어제'밤엔 동선이, 용현이 종호… 하면서 호춘이가 너희들 이름을 외우더구나.》하고 호춘이의 이야기를 해 주군 했다.

호춘이는 반 동무들이 찾아 오면 꼭 다물었던 입에 웃음을 띄우고 분단 소식을 묻군 했다.

동무들과 떨어져 병원에 와 있었지만 호춘이는 이렇게 분단 동무들의 마음과 함께 있었다.

병국이와 함께 다른 반 동무들도 자주 호춘이를 찾아 와 동선이랑 반 동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도와 준다는 이야기며 날마다 분단 동무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이 많은 동무들의 사랑과 의사 선생님들의 지극한 노력으로 호춘이는 다시 튼튼한 몸이 되여 퇴원하였다.

그 후 호춘이는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하여 최우등생이 되고 분단 위원이 되였다.

호춘이와 분단 동무들 사이에 있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른 분단들에는 물론이고온 공장 마을에 알려졌다.

《작업반의 아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호춘이가 작업반의 아들로 된대.》

이런 소문이 떠 돌았다. 정말 저녁 무렵이 되자 공장 당 위원장, 지배인 아저씨랑 함께 호춘이 아버지가 일하던 작업반의 아저씨들이 분단에 왔다.

아저씨들은 함께 일하던 동지의 아들이며 미제 원쑤놈들에게 사랑하는 두 부모를 잃은 호춘이를 《작업반의 아들》로 정하고 대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작업반에서 돌보기로 했다는 소식을 분단 동무들에게 전하였다.

이 날 아저씨들은 호춘이에게 새 양복을 입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새 옷 한 벌 씩을 해 왔었다.

이 고마운 아저씨들의 마음에 분단 동무들의 눈'시울은 모두 뜨거워 났다.

할아버지는 《좋은 세월에 오래 사니 이런 고마운 사람들도 보는군!》하고 감격해 하셨다. 할아버지에겐 작업반 아저씨들과 분단 아이들이 모두 자기 아들과 손자처럼 생각되였다. 호춘이네 집엔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작업반의 아저씨들이 매일같이 찾아 와서는 불이 잘 드는가 생활에 무슨 불편은 없는가 일일이 알아 보고 손질하고 가셨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궐기한 아저씨들은 《호춘이와 그의 아버지 몫까지 일하자!》고 결의하고 자기들의 당 분조장이였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일하던 호춘이 아버지의

동 시

인민 군대 우리 형님

인민군대 우리 형님
분대장이죠
앞가슴에 절렁절렁
훈장도 많아요

한 달에 한번씩
서로 소식 전하며
형님과 나는요
경쟁 걸었죠

5점 받은 자랑을요
형님께 띄우면
명중 사격 《우》를 받은
형님 자랑 오지요

형님은 명사수
나는요 최우등생
어서 빨리 자라서
인민군대 될래요

함북 김책시
쌍암 중학교 3 학년
유 두선

모범을 따라 1 분 1 초도 기대를 쉬우지 않고 일하며 날마다 200%, 300%의 능률을 올리였다.

호춘이와 함께 분단 동무들은 이런 아저씨들을 자주 찾아 가 한 집안 식구처럼 일'손도 도와 드리고 노래와 춤, 재담 등으로 휴식의 한 때를 함께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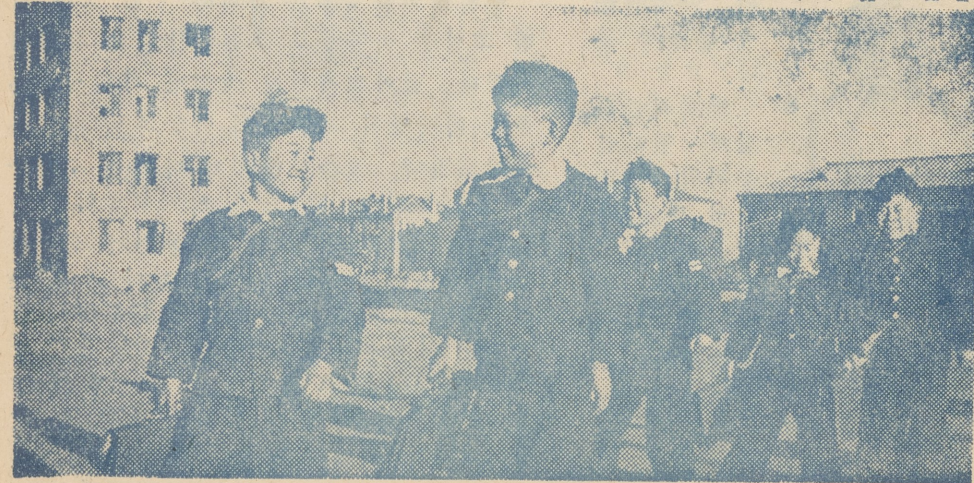
어느 날 분단에는 김책 공대에 다니는 김 순환이란 형님께서 편지가 왔다.

《… 나도 그 작업반에 있었는 데 호춘이를 돕겠습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호춘이에게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책까지 보내 온 것이였다. 이날 저녁 호춘이는 편지를 들고 선생님과 함께 작업반 선동원 김 동수 아저씨네 집으로 갔다. 아주머니는《호춘이 왔구나!》 하고 반가히 맞아 주며 의롱안에서 새 양말을 꺼내 신겨 주시는 것이였다.

호춘이가 작업반의 아들로 된 다음부터 아주머니들은 누구나 호춘이를 위한 저금통장을 만들고 상점에 가 무엇을 사다 조금 씩 남은 돈을 저금했다.

이 때 마침 동수 아저씨가 일터에서 돌아 왔다. 《아저씨, 이런 편지가 왔어요》 하고 호춘이가 성큼 일어나 편지를 내 밀었다.

《음, 엽반에도 이런 편지가 왔다. 그전에 우리 작업반원이였어.》 하시면서 고무공 여섯 개를 내 놓으셨다.

《한 반에 하나씩 나눠 줘, 자 그리고 이것두.》 그것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에 대한 그림 이야기 책이였다.

호춘이는 껑충껑충 뛰며 좋아 했다. 자주 분단에 나와서 공장 이야기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군 하는 작업반 아저씨들은 40 권이나 되는 재미 있는 책들을 사주셨다.

이러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작업반과 분단에는 큰 경사가 났다.

아저씨네 작업반에 천리마 작업반 칭호가 내려 온 것이다. 분단 동무들은 손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제강소 앞 마당으로 뛰여 갔다. 이윽고 폭포처럼 박수가 터지고 꽃보라가 물'결치는 가운데 호춘이가 주석단에 올라 갔다. 직총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선생님이 작업반 아저씨들과 함께 그의 앞 가슴에 천리마 휘장을 달아 주셨다.

아저씨들은 호춘이도 천리마 작업반원으로 추천했던 것이다.

호춘이의 가슴은 자꾸만 들먹거렸다.

(앞으로 훌륭한 압연공이 되리라,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이 되여 이 은혜에 보답하리라!) 호춘이는 굳게굳게 마음 다지며 천리마 휘장을 만지작거렸다.

모였던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꽃보라를 뿌리며 호춘이의 앞날을 축복했다.

미제 원쑤놈들은 호춘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아 갔지만 그는 이 좋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이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호춘이에게는 그야말로 수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이 이끄시는 사회주의 조국의 넓고 넓은 품이 있다.

—호춘이의 앞날은 희망차다—

어린 복쑤자들

조 기 천　　그림 채 용 찬

함흥시 흥남 구역 서호 중학교의 소년단실에 들어서면 표지에 커다란 글'자로 《모범》이라 씌여 있는 붉은 앨범 한 책이 있다.

이 앨범을 펼쳐 들면 검은 학생복에 붉은 넥타이를 단정히 맨 한 소년단원의 사진이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 있다.

《어 순선 동무는 우리 학교에서 자란 조국의 아들입니다. 순선 동무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정든 고향 땅에 기여든 미제 원쑤들을 반대해서 용감히 싸운 어린 투사이며 중앙 모범 소년단원입니다.》

바로 어 순선 동무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자기 동무들인 김 재욱, 박 덕록 동무들과 함께 고향 마을에 기여 든 원쑤 미제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의 투쟁은 오늘 당과 수령 앞에 무한히 충직한 어린 투사로 배우며 자라는 이곳 소년단원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1950년 10월 중순이였다. 순선이가 나서 자란 정든 고향 마을에 미제 원쑤 놈들이 기여 들었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삽시간에 온통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피에 굶주린 승냥이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 학살하였고 집을 불사르고 인민들의 재산을 제멋대로 빼앗아 갔다.

미제 원쑤놈들은 《치안대》 놈들을 앞세우고 싸다니면서 로동당원들을 잡아다 죽이기에 미쳐 날뛰였다. 앞잡이 놈들의 고자질로 로동당원이며 모범 농민이였던 순선이의 아버지도 놈들에게 체포되였다. 그러나 순선이의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애국자들은 원쑤놈들의 그 어떠한 악행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혁명의 절개를 지켰다. 악에 바친 인간 백정 놈들은 순선이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애국자들을 서호진 앞 바다'가에 끌고 나가 무참히 학살하였다.

바다'가의 모래밭은 매일 같이 애국자들의 붉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원쑤놈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앗긴 순선이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가슴이 막 미여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자라 온 행복한 지난 날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울고만 있지는 않았다.

《눈물로는 원쑤를 갚을 수 없다!

아버지의 원쑤, 우리 마을과 학교를 빼앗은 원쑤놈들에게 백 배, 천 배로 복쑤의 불벼락을 들씌워야 한다.

그렇다! 싸워야 한다.》

순선의 어린 심장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쑤심으로 불타 올랐다. 그의 머리 속에는 학교 선생님들 한테서와 소년단 모임들에서 배운 항일 유격 투쟁 시기의 용감한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떠 올랐다. 그런가 하면 《로동당원의 아들답게 언제 어데서나 용감하여야 한다.》고 타이르던 아버지의 말씀도 그의 투지를 더욱 고무하여 주

었다.

어느 날 밤 순선이는 자기와 같이 소년단 열성자이며 최우등생이고 제일 믿고 친한 동무들인 재옥이와 덕록이를 몰래 만났다.

세 소년단원들은 순선이네 집 토굴방의 희미한 등잔'불 밑에 모여 앉았다. 원쑤놈들이 짐승처럼 고아대는 소리와 불길한 총소리가 아따금 어둠을 가르며 들려 오는 무시무시한 밤이였건만 그들의 눈'동자는 맑은 하늘의 별'빛마냥 반짝이고 있었다.

순선이는 동무들에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털어 놓았다. 재옥이도 덕록이도 순선이의 결심을 두말 없이 찬성해 나섰다. 사실 그들도 요즘 순선이와 같이 원쑤들에 대한 복쑤심으로 줄곧 가슴을 불태워 왔던 것이다. 아니 조선 사람 치고 그 누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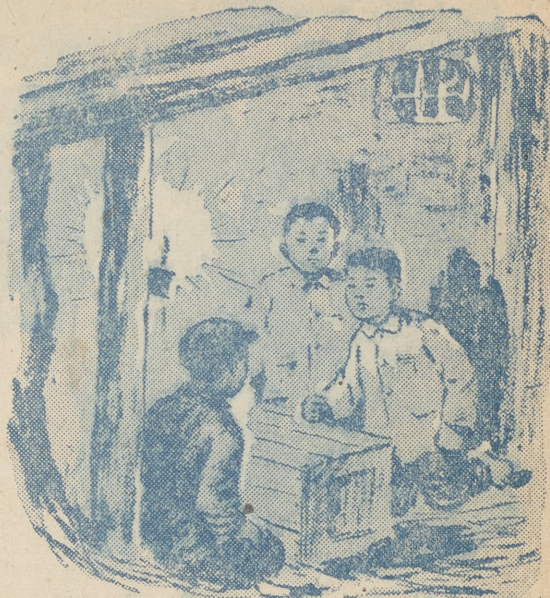
물론 싸움은 목숨을 내 걸고 해야 하는 더 없이 위험한 것이였다. 그렇지만 당의 따뜻한 품 속에서 혁명 정신을 배워 온 어린 투사들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어렸지만 세상에서 원쑤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나 어려운 투쟁에서 물러서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이미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켜 모두 투쟁에서 끝까지 용감할 것과 비밀을 고수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들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아동단원들의 투쟁을 본 받아 투쟁의 첫 걸음으로 삐라 공작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전체 조선 인민을 전쟁 승리에로 부르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삐라 내용을 어떻게 써야겠는가를 의논하였다.

소질에 따라 분공이 조직되였다. 삐라 원문은 순선이가 만들기로 하고 글씨를 잘 쓰는 재옥이는 먹으로 커다란 종이에 옮겨 쓸 것을 맡았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덕록이는 글 아래에다 원쑤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그림을 그릴 것을 책임졌다.

드디어 세 동무가 열 장의 삐라를 만들어 낸 것은 밤 한 시가 넘어서였다. 그들은 삐라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드는 작도리 거리에 내다 붙이기로 하였다.

세 동무는 삐라를 옷 소매 속에 말아 넣고 밖에 나섰다. 먹물을 뿌린듯이 캄캄한 밤이여서 그들의 조그마한 몸뚱이들이 원쑤놈들의 앙칼진 눈초리를 피하기에는 십상이였다.

막상 투쟁의 길에 나서니 어쩐지 가슴이 떨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걷고 또 걸었다. 작도리 거리까지는 5 리가 넘었다.

얼마 후 거리에 다달은 그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조선소 정문 앞 작도 상점 벽으로 숨을 죽이며 다가 갔다.

재옥이가 먼저 지나 가면서 슬쩍 풀칠을 한 뒤로 덕록이가 재빨리 삐라를 붙여 놓았다. 마지막으로 멀지감치 망을 보고 섰던 순선이가 그것을 더 단단히 붙이며 지나 갔다.

이렇게 첫 장을 붙여 놓고 보니 이제는 어지간히 자신심이 생겼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선소 울타리와 행길'가의 전주등에 삐라를 붙여 나갔다. 심지어 원쑤들이 드나드는 식당 벽에까지도 붙여 놓았다.

그들이 가지고 간 삐라를 다 붙이고 집에 돌아 왔을 때는 괘종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있었다.

첫 공작에서 성공한 그들은 너무 기뻐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돌아 갔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부쩍부쩍 솟아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작도리 거리에서는 대 소동이 일어 났다. 원쑤놈들은 눈깔을 까뒤집고 헤덤비기 시작했다. 그러나 철천지 원쑤 미제 야수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라고 호소한 삐라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날개라도 돋힌 듯이 퍼져 갔으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넣어 주었다.

사람들은 원쑤놈들의 발광이 심할수록 비웃음을 보냈고 완강한 반항으로 대답하하였다.

삐라 공작은 계속되였다.

며칠 후 그들은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였다. 밤에 어둠을 타서 통신선을 끊어 버리군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이 일도 아주 솜씨 있게 깜쪽 같이 해 치웠다.

11월 하순 어느 날이였다.

밤이 퍽 깊어서 름름한 체구에 농민 차림을 한 한 젊은 아저씨가 순선이네 집으로 찾아 왔다.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인 모양이였다. 그는 마을 정형을 이것 저것 물어 보다가 나중에 조용히 며칠 있으면 우리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이 원쑤들을 무찌르면서 이곳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고 귀뜀해 주었다.

순선이는 하두 기뻐서 그 달음으로 동무들에게 뛰여 가 알려 주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다음 날 세 동무는 토굴방에 모여 앉았다. 순선이는 동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정세에 알맞게 투쟁을 더욱 강화할 문제를 의논하였다. 흥분과 기쁨은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 날 저녁으로 인민 군대가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협동 작전하에 재 진격을 한다는 내용의 삐라를 20 여 매나 써서 마을과 거리의 이곳 저곳에 붙였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다도 북으로부터 나오는 기차 소리가 잦아진 것이 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애들아, 왜 오늘따라 기차 소리가 저렇게 분주스러우니 응?》

덕록이가 하는 말에 순선이의 머리 속을 얼핏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래 틀림 없이 저놈들이 내 빼느라고 저 지랄일 게다. 그런데…》

하고 순선이가 말을 다시 이으려 할때 재옥이가 옆에서 《내 빼는 놈들을 족쳤으면!》 하고 덧붙였다.

그들은 어떻거든지 도망치는 원쑤놈들의 목덜미를 후려 갈겨야겠다고 새로운 결의들을 다졌다.

순선이네 집에는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가 시작되자 원쑤와 싸우기 위해 아버지가 구해다 간직해 둔 수류탄 몇개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류탄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 여지까지 그것을 써 볼 념을 못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날 저녁 순선은 아버지가 특별 자위대 훈련을 다니면서 쓰던 학습장이 있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치였다. 아버지가 땅속에 묻어 두는 문서 꾸러미를 얼핏 보아 두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가 거기에는 수류탄의 구조와 사용법이

차근차근 적혀 있었다.

세 동무는 이튿날 온 종일 학습장을 가지고 수류탄 쓰는 법을 연구하고 배웠다. 그리고는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밤이 이슥해지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철'길 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살금살금 논판을 기여서 서호 역과 마전역 사이에 있는 풍흥리 철'길 섶에 와서 놈들의 눈에 띄우지 않게 매복하였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사위는 고요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어디선가 우리의 인민 군대 포성이 은은히 들려 오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이윽해서 북으로부터 기적 소리가 메아리 치며 들려 왔다. 1분, 2분…달려 오는 기차를 기다리는 그들의 가슴은 죄여 들었다. 다가 오는 기관차와의 거리를 가늠하고 있던 순선이의 나지막한 구령을 따라 그들은 수류탄의 안전 못을 뽑았다.

난생 처음 던져 보는 수류탄이였다.

그들은 제대로 폭발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일제히 복쑤의 수류탄을 힘껏 내 던졌다.

순간《쾅! 쾅!》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세 개의 수류탄이 바로 철'길 우에서 연바로 폭발하였다. 삽시간에 철'길과 원쑤 놈들을 태운 기관차가 폭연 속에 휩싸였다.

1950년 11월 25일! 어린 복쑤자들은 이처럼 투쟁 속에서 원쑤를 무찔러 재 진격해 나오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맞이하였다.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고향 마을에 다시금 행복한 생활이 돌아 왔다.

용감한 소년단원 어 순선이와 그의 동무들의 앞 가슴에는 다시 붉은 넥타이가 휘날리게 되였다.

그들은 오늘도 천리마 기수들의 대오 속에서 당과 수령의 부름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자기들의 지혜와 힘과 충성을 다해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

☆ ☆

3년을 하루 같이

박 장 숙　　　　그림 리 찬 우

동무들은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서 소년단원들은 국가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늘 배겠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년단원들 속에는 강계 중학교 단위원인 김 경섭 동무를 비롯하여 나라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동무들이 그처럼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국가 재산을 애호하는데 모범적인 한 소년단원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흥남 류정 중학교 인민반에서 공부하는 최우등생 최 영희 동무는 새해에 열 세 살 잡혔습니다. 영희 동무의 꾹 다문 입술이며 새'별처럼 반짝이는 두 눈은 당돌하고 기특한 그의 성격을 똑똑히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희 동무네 가족은 모두 셋인데 어머니는 흥남 비료 공장에 다니시고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유치원에 간답니다.

최 영희 동무는 여러 동무들과 다름 없는 보통 소년단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 동무들은 영희 동무가 국가 재산을 애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는 가를 듣게 되면 감탄할 거예요.

어느 날이였습니다.

영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오는데 갑자기 서호 앞'바다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 들더니 순식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답니다. 영희는 집으로 향해 달음질 쳤지요. 이 때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빵빵하고 달려 오더니 획하고 영희 옆을 스쳐 지나 갔어요. 그런데 웬 일일가요. 영희는 분명히 대'줄기 같이 퍼붓는 비'발 속으로 자동차 우에서 무엇인가 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영희는 재빨리 달려 가서 그것을 살펴 보았지요. 그것은 패 큰 쇠'덩이인데 분명히 무슨 기계의 부속품이였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비'속을 뚫고 멀리 살아졌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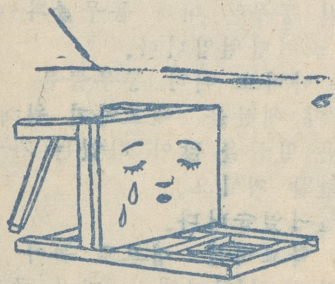
이것은 틀림 없이 어느

공장에 가져가는 기계 부속품 일거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국가의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영희의 머리'속에는 피뜩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 났습니다.

그 언젠가였습니다.

영희가 분단에서 빌려 온 소년단 잡지책의 표지를 동생 복순이가 찢어 놓았지요.

영희는 은근히 걱정되였지만 한편으로 《일없어, 그까짓 쯤이야—내 것두 아닌데.》 하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영희의 어머니는 몹씨 걱정하시면서 나라와 집단의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모두가 그렇게 해야 우리 나라는 부강해 지고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모든 소년단원들이 학교의 책을 빌려다가 영희처럼 찢어 놓으면 마지막에는 그 책이 없어지겠지?》 어머니는 차근차근 영희를 타이르시고 풀로 찢어진 표지를 잘 부치고 다리미로 다려서 새 책처럼 만들어 주셨답니다.

눈물이 글썽해진 영희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었지요.

그 때부터 영희는 어머니 말씀 대로 항상 책 뿐만 아니라 작은 물건이라도 나라와 집단의 것이라면 사랑하고 아끼며 잘 보관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였답니다.

항상 영희는 어머님이 하시던 그 때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기에 비오는 그 날도 무거운 기계 부속품을 기여코 자동차 사업소 아저씨들에게 가져다 드리고서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어느 날 선생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소년단원이 되려면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과 학교,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다니는 도로와 그 주변에 심은 나무들과 공원을 주인 답게 잘 가꾸고 꾸려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영희는 동무들이 모두 돌아 간 후에도 혼자 교실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 말씀 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얼마 동안 두 눈을 깜빡이고 있던 영희는 무릎을 탁 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우선 우리 교실부터 꾸려야 하겠다.》 하고 그는 생각했답니다.

영희 동무는 장난 꾸러기 동무들의 마사진 책상, 걸상들을 낱낱이 살펴 보았습니다. 책상, 걸상 다리들이 못이 빠져 찌그러진 것들도 있었고 잉크가 배였으며 칼 자국이 나서 얼룩이 진 것들이 보기에 가슴 아팠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책상을 다 고치자면 많은 못이 필요

한데 집에는 설합 속에 몇 개 안되는 구부러진 낡은 못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가?》 영희는 생각다 못하여 그 길로 비료 공장에 다니시는 뒤'집 아저씨에게 찾아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저씨는 영희의 뜻이 너무도 기특하여 집에 있던 못을 모조리 몰아 손수 구부러진 것은 잘 펴서 주었습니다.

이튿 날 새벽에 영희는 마치와 못 그릇을 들고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못이 빠져서 삐걱거리는 책상, 걸상들을 골라서 차례로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서튼 마치질에 그만 손'가락을 때려서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이를 옥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꼭 해 내고야 말겠다는 굳센 마음으로 못을 박고 또 박아 나갔습니다.

영희가 땅땅 마치질을 하고 있는데 단 위원장 최 석진 동무와 분단 위원장 김영 동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야, 영희 네가 벌써 왔니? 그런데 책상을 고치는구나!》 하면서 두 동무는 영희를 도와 나섰답니다.

찌그러졌던 책상, 걸상을 이렇게 세 동무가 힘을 모아 말끔히 고쳐 놓았답니다.

그 날 분단 위원장은 전체 동무들 앞에서 영희의 아름다운 일을 칭찬했습니다.

영희 동무의 좋은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늦도록 영희는 부엌에서 벽돌을 찧어 가루를 내고 있었습니다. 콩콩 찧는 절구 소리에 어머니가 잠을 깨였지요.

《영희 너 아직도 자지 않는구나, 그게 뭐니?》

영희는 대답 대신 생글생글 웃기만 했지요.

영희가 벌써 세수 대야에 그득하게 찧어 담은 빨간 벽돌 가루를 보신 어머니는 눈이 둥굴해졌습니다.

《이것을 다 무엇하련?》

《어머니 더럽혀진 책상, 의자 다리에 칠하겠어요.》

《너는 참 좋은 일을 생각했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희와 함께 일을 거들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머니와 영희가 풀을 쑤어서 채에 친 벽돌 가루를 두 바께쯔나 가득 풀어 놓고 잠'자리에 누었을 때 벽에 걸린 시계는 새로 한 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튿 날은 마침 일요일이라 어머니도 영희를 따라 바께쯔를 들고 학교로 가셨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선 영희 동무는 책상, 걸상들이 마치도 (영희 동무 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세요!) 하고 말하는 듯이 느껴졌답니다.

어머니와 영희는 40 개의 책상, 걸상 다리에 빨간 옷을 산뜻하게 입혔답니다.

일을 다 끝낸 뒤 영희는 교실이 환하게 된 교단 우에 척 올라 서서

《어머니 보세요. 정말 좋아요. 래일 선생님이 이렇게 척 서서 우리 교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영희를 바라 보시며 웃으셨지요.

《그런데 네 뒤의 흑판이 좀 산뜻하게 새깜했으면 더 좋겠구나!》 하고 말씀 하셨답니다.

영희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먹을 갈기

시작 했습니다. 마침 그 날 밤에 공부하자고 찾아 왔던 반장 최 춘화 동무도 영희를 도왔 답니다.

《얘 영희야 우리 오늘 밤에 가지고 가서 바르자꾸나 그래야 말라서 래일 선생님이 글을 쓰실 수 있을 테니까.》

그 날 밤 두 동무는 정성 들여서 흑판에 먹칠을 했답니다.

춘화 동무는 밑에서 걸상을 붙잡아 주고 영희는 올라 서서 솔로 흑판에다 먹물을 발랐습니다.

영희는 날을 따라 달라지는 교실에 들어 설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실을 깨끗이 거두며 책상, 걸상을 윤이 나게 닦아야겠다는 생각도 났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동무들이 걸레 하나를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다툼질을 하는 것을 본 영희는 집에 가서 여러 개의 걸레를 만들어다 이튿날 청소 도구 함에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더 많은 걸레가 필요한데 집에서는 그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영희 동무는 인민반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민 반장 아주머니도 또 다른 아주머니들도 기특한 영희를 도와서 한 개 두 개 씩 정성 들여 걸레를 누비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희 동무는 전체 반 동무들이 모두다 한 개 씩 가지도록 걸레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영희는 그 후 날마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나와 교실 청소를 하고 돌아 가서는 밥을 먹고 학교에 나오군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어김 없이 했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 날이였습니다.

영희는 그 날 아침도 일찍 일어나 뛰쳐 나왔습니다. 맵짠 새벽 바람은 영희의 두 빰을 사정 없이 때렸지만 영희는 추운 줄도 모르고 학교로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웬 일일가요? 영희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서자 벌써 앞서 나온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단 위원장 김 영이와 학급반장이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누가 나와서 깜쪽같이 청소를 해 놓는지 하루 아침 일찍 나와서 살펴 보자고 약속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영희의 모범을 따라 다음 날부터 그들도 조기 청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뒤를 따라 전체 분단 동무들이 조기 청소에 앞을 다투어 나오며 영희의 모범을 본 받아 모두가 자기의 책상, 걸상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깨끗하게 거두고 있답니다.

영희 동무는 이렇게 3년을 하루같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학 환상 소설◇

김 동섭

그림 양 재혁

(전호에서 계속)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 땅에도 저런 끔찍한 시절이 다 있었구나.》정남이도 고개를 흔들었다.

《지구가 생겨 나서 수억 만년 때로는 바다 밑도 되고 때로는 산 기슭도 되였을 테니깐…》 혜선이도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구 보면 땅 속은 보물고일 뿐만 아니라 력사 박물관이로구나.》 연희가 신나서 웨쳤다.

《그래 저 매개 층마다가 학자들에게는 귀중한 참고서일 거야.》 정남이도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대답하였다.

영사막은 갑자기 시커멓게 되였다.

《석탄이다!》 연희는 온통 새깜해지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여기는 그때 파묻힌 밀림이겠지.》 정남이는 탄소의 포함량을 측정하면서 말하였다.

탐조등의 불'빛을 받아 석탄'더미나는 검실검실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나라엔 석탄두 많지, 이미 발견된 것만 해두 수십억 톤이 넘는다니깐.》 종철이도 편안히 앉으면서 말하였다.

《그럼 우리가 1년에 수천만 톤씩 캐 내여도 100년 이상 땔 수 있겠구나.》 혜선이는 곧 암산을 해냈다.

《그렇구 말구, 화력 발전소, 카바이트 공장, 쎄멘트 공장들에서 넉넉히 쓸 수 있지.》 정남이도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잠시 고개를 갸웃둥하고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던 혜선이가

《아니 석탄은 2억 5천 만년 전에 생긴 것인데 자꾸 캐 내기만하면 100년 후엔 어떻게 하나?》 하고 묻는 것이였다.

《그때야 과학이 발전하니깐 다른 수가 있겠지 뭐.》 종철이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 순간 연희는 영사막에 세찬 불꽃이 튀면서 불'줄기가 한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폭발이다!》 연희는 고함을 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수레는 불'뎅이 속에 싸이였다. 그처럼 두터운 수레의 벽이 금시에 시뻘겋게 달아 올랐다. 불'줄기는 세차게 한쪽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우로 45도, 전 속력으로!》 정남이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수레 안은 숨이 막힐듯 하였다. 벌써 옷인지 종이인지 타는 냄새가 고약했다. 연희와 혜선이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 매고 재채기를 했다.

정말 다행이도 수레는 불'길 속을 벗어 났다. 그들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입에는 산소 호흡기를 물고 있었다.

《수레를 멈춰!》 잠시 후에 정남이는 목쉰 소리로 웨쳤다.

《수레가 너무 달았어, 좀 식혀서 가야지, 탄층 속의 가스에 불이 붙겠어!》

《무연탄이길래 다행이지 휘발 성분이 많은 석탄이라면 벌써…》 종철이도 달아 오른 발동기에 손 끝을 대 보며 말했다.

《아까 무엇 때문에 폭발이 일어 났을가?》 연희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땅 속에서 불'덩어리가 솟아 났나?》 혜선이도 고개를 쳐들면서 말하였다.

《아니야, 그건 아마 땅 우에서 탄광 아저씨들이 폭발시킨 것같애, 이젠 석탄을 땅 속에 들어 가 캐 내지 않고 땅 속에 그냥 둔 채로 불을 붙여서 가스로 만들어 쓴다고 하지 않았니.》 종철이는 며칠 전에 청년 탄광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났다.

《아하! 그거 참 멋있는데.》 그들은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다.

《그통에 우리가 하마트면 불 나비가 될번 했구나.》 혜선이의 이 말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이러는 사이에 그들은 졸기 시작하였다. 맨 먼저 종철이가 머리 방아를 찧기 시작했고 정남이도 고개를 제끼고 잠들어 버렸다. 연희도 눈을 몇 번 비벼 대다가 그만 엎드리고 말았다.

그러나 혜선이만은 덤벼 드는 잠과 씨름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100년 후엔 어떻게 하나? 선생님도 탐사대 아저씨들도 그때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가? 어서 돌아 가서 이 말을 꼭 물어 봐야 겠어.》 혜선이는 머리채를 굳게 동여 매고 허벅다리를 연상 꼬집어 가면서 무전을 다시 치기 시작했다.

《탐사대 아저씨! 선생님!.》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끝끝내 혜선이도 잠나라에 빠져 들어 가고 말았다.

판가리 싸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혜선이는 눈을 번쩍 떴다. 그 누구인지 귀'전에서 부르는듯 하였다.

혜선이는 꿈인상 싶어 발을 굴러 보았다.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꿈이였나봐.》 혼자 중얼거리면서 혜선이는 또다시 눈을 스르르 감았다.

그 순간 또다시 그들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가 수신기를 통해 어렴풋이 스쳐 지나 갔다.

《탐사대 아저씨!》 혜선이는 너무도 기뻐서 껑충껑충 뛰였다.

《웬 일이야?》 정남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무전이 통했어!》 혜선이가 웨치자

《만세!》 하고 소리치며 잠들었던 연희와 종철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였다. 네 동무는 한바탕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다.

연이여 수신기에서는 선생님의 낯 익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선생님!》 그들은 한꺼번에 웨쳤다. 네 동무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고 있는 선생님은 너무도 기뻐서인지 목이 메여 있는듯 하였다.

그동안 선생님과 탐사대 아저씨들은 수레가 있는 곳을 알아 내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던 것이였다.

땅 속을 들여다 보는 투시 장치는 물론이고 특수한 전자파 탐지기 등 온갖 기계들을 총 동원하였지만 종내 찾아 내지를 못하였다. 나중에는 세 대의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날날이 뒤졌다. 이리하여 소년들이 떠난 곳으로부터 백 팔십리나 떨어진 곳에서 가스화 탄광의 불'길 속에 빠져 들어 가는 수레를 발견했던 것이였다.

무전에선 곧 그들이 지금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그들은 지금 갈미산 남쪽 기슭 아래에 땅 속 깊이 약 1,720 메터나 되는 곳에 있었다.

《갈미산 남쪽?》 이 말을 듣고 종철이는 귀가 번쩍 띄였다.

《그럼 이 근처에 석유가 있을 지도 몰라.》

《음, 참 그래》정남이도 그 언젠가 크루쇼크에서 이곳에 석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토론하던 일이 생각 났다.

《좀 더 내려가 보자!》 종철이는 신나서 웨쳤다.

그런데 선생님과 아저씨들은 어서 올라오라고 재촉하는 것이였다.

정남이는 잠시 망서렸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 보자요.》 혜선이도 이젠 퍽 대담해졌다.

《저걸 봐!》 연희가 가리키는 영사막을 보니 차곡차곡 판을 쌓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바위가 보였고 그 틈으로 검붉고 윤'기 나는 액체가 스며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석유다!》

《만세!!》 네 동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나라에 석유가 없을 리가 있나.》

《야아 석유까지 나면 우리 나라엔 없는 게 없어!》 그들은 곧 무전으로 이것을 알렸다.

수천 길을 사이 두고 땅 우에서도 만세 소리가 울렸다.

《석유다! 석유다!》하는 웨침 소리가 수신기를 통해 똑똑히 들려 왔다.

《아래로!》 정남이는 엄숙히 말했다.

수레는 거의 수직으로 기여 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에 스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수레는 기름 속을 미끌어지듯이 헤염쳐 나가기 시작하였다. 수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도 훌륭한 승용차에 타고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석유 속이로구나!》 연희는 온통 붉으스레한 영사막을 보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많이 깔고 앉아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다 쓰다니!》

《그러기에 빨리 모두 찾아 내자는 거지!》 그들은 한동안 웅성댔다.

《저게 웬 일일가?》 종철이가 놀라면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압력계의 바늘이 갑자기 올라 가고 있는 것이였다.

《응 놀랠 건 없어 석유가 있는 곳은 이렇게 압력이 높단다. 그래서 땅 우로부터 구멍만 내려 뚫려 놓으면 분수처럼 석유가 솟아 오른단 말이야.》 정남이는 재미나서 말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곧장 우로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 수레가 지나간 구멍으로 곧 석유가 따라 올라 올게 아니야?》 연희가 당나귀 피로 생각해 냈었다.

《좋아, 석유의 분수를 파서 우리가 첫 개발자로 되자.》 종철이도 찬성했다.

두더지 수레는 곧추 우로 솟아 오르기 시작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전국 소년단 그림극 및 환등극 경연 대회에서 특등을 받은 작품

깡충이네 동무들

—개성시 남산 중학교단 집체작—

해설—리 수정
담당—깡충이 (토끼)—리 귀순
노랑이 (토끼)—김 명자
사슴 —김 종호
다람쥐 —왕 은숙
부엉이 —강 정애
곰 —왕 영서

연출—강 정애
음악—왕 은숙
조명—리 외정

제 1 경

△ 무대—깡충이네 집 앞에는 꽃밭, 뒤에는 큰나무

△ 해설— 동무들! 나는 《깡충이네 동무들》 이라는 아주 재미 나는 만화 그림 극을 보여 드리겠어요! (막이 열린다.) 아주 깊은 산'골에 토끼, 다람쥐, 사슴, 노루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의좋게 사는 푸른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 동무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거나 다투는 일이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가 서로 도와 농사를 지어 량식을 장만하면서 오손도손 재미 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 명랑한 음악이 울린다.

△ 노랑이 등장

노랑이—깡충아! 깡충아! 일하며 나가자

깡충이—………

노랑이—깡충아! 깡충아, 웬 잠을 아직도 자니? 깡충아! 깡충아!

△ 집승들 등장 깡충이 창문으로 내다 본다.

깡충이—얘들아! 나는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나갈 것 같다.

다람쥐—그럼 삽이라두 좀 빌려 주렴.

깡충이—삽은 저 아래'집 알룩이가 빌려 갔어.

사슴 —그럼 배가 아프면 일하며 나가지 말고 하루 푹 쉬렴, 네 일은 우리가 다 할테니까.

노랑이—그래 일 걱정은 말고 집에서 하루 쉬렴.

깡충이—아이구 고마워, 그럼 수고해 줘! 아이구 배야, 아이구…(창문안으로 퇴장)

다람쥐—얘들아 우리 다 같이 일하며 나가자.

노랑이—그래 깡충이 몫까지 해주자.

△ 집승들 퇴장.

△ 깡충이 자루 들고 등장.

깡충이—해해해 내가 아픈가뭐, 깜쪽 같이 속여 넘겼지? 여태까지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은 아래'동네 밤 동산으로 가서 그놈의 밤을 다 주어다가 혼자 냠냠 구워 먹어야지.

사슴

△ 깡충이 퇴장

△ 유쾌한 음악

제 2 경

무대 —밤이 주렁주렁 열린 울창한 밤'동산

해설 —깡충이는 동무들과 일하며 가지 않고 밤'동산으로 밤을 주으며 혼자 내며 갔어요.

올 해도 밤'동산에는 밤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깡충이는 침을 꿀꺽꿀꺽 넘기면서 밤'동산으로 찾아 왔어요.

깡충이—밤이 많이 열렸구나, 저것을 따다가 한솥 삶아 먹으면 배가 불쑥 하겠는걸! 그런데 바람에 떨어진건 모두 다람쥐가 주어 갔구나. 저걸 어떻게 딴담?

△ 해설 이 때 아래'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곰서방이 어슬렁어슬렁 올라 왔어요.

곰 —넌 뭘 하느냐?

깡충이—곰 아저씨 안녕하세요?

곰 —오냐.

깡충이—곰 아저씨 나 밤좀 따 주세요.

곰 —그래 따서 같이 나누어 먹을가?

깡충이—네! 아이 좋아.

(곰은 나무를 두드려 밤을 떨군다.)

곰 —깡충아

깡충이—네?

곰 —내가 이렇게 두드려 떨어 뜨릴테니 너는 주어다가 우리 집 마당에 쌓아라. 이따가 우리 꼭 같이 나눠 먹자 응.

깡충이—네.

제 3 경

△ 무대—곰의 집 마당. 자물쇠가 채워진 창고, 가득가득 담은 밤 바구니.

△ 해설—이렇게 깡충이는 해가 질 때까지 땀을 빨빨 흘려 가며 밤을 모아다가 곰서방네 마당에 수북히 쌓아 놓았어요. 이젠 깡충이와 곰 서방이 자기가 일한 몫을 나누어 가질 때가 되였죠? 자 봅시다.

곰 —옛다, 주어 온 값으로 이걸 받아라 이것만 해도 배가 부르겠다.

깡충이—아유, 아저씨두 같이 나누어 먹자고 하잖았어요?

곰 —조그만 놈이 욕심도 많다. 이만 하면 됐지 웬 욕심이냐?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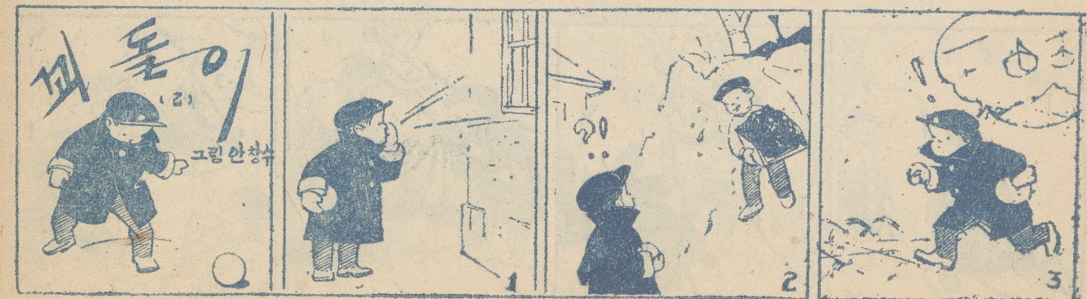
깡충이—내가 이걸 모두 주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요걸 주어요?

곰 —그럼 이걸 창고에 넣고 껍질을 벗겨라. 그럼 한 짐을 주마.

깡충이—그럼 꼭 주시죠?

곰 —암 한짐 잔뜩 주구 말구.

제 4 경

△ 무대 —곰의 창고, 커다란 자물쇠가 잠겨 있다. 창문이 보인다.

△ 해설 —깡충이는 욕심쟁이 곰 서방이 시키는 대로 창고에 밤을 넣고 부지런히 껍질을 깠으나 캄캄한 밤'중이 됐지만 절반도 까지 못했답니다.

부엉이

게으르고 욕심쟁이 곰서방은 깡충이를 창고에 가두어 넣고 일을 시키려고 창고에 커다란 자물쇠를 떨꺽 잠그어 놓고서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였습니다.

동무들, 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문 두드리는 소리)

깡충이—곰 아저씨! 곰 아저씨 문 좀 열어 주세요, 곰 아저씨 곰 아저씨 문을 열어 주어요 네? 문 열어 줘요! 응—응— 흑—흑—

해설 —이 때 깡충이 우는 소리를 듣고 부엉이 아주머니가 찾아 왔어요. (부엉이 지붕 뒤에 등장)

부엉이—얘 깡충아! 깡충아!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깡충이—응 응 곰이 나하고 밤을 따 나눠 먹자고 하고서 밤은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창고에 가두었어요.

부엉이—저런 쯧쯧 그 몹쓸 욕심쟁이 곰서방한테 걸렸구나 내 빨리 너희 동무들에게 알려 주마.

깡충이—네, 빨리 알려 주세요, 응 응 (운다)

제 5 경

△ 해설 —부엉이 아주머니에게서 깡충이네 소식을 들은 깡충이네 동무들은 밤 새도록 깡충이를 어떻게 구해 낼 것인가를 의논했답니다. 그 이튿날이 되였어요. 깡충이네 동무들은 곰 서방네 집 뒤에 숨어서 곰서방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아주 게으른 곰 서방은 아침 해'님이 동산에 높이 떠 올랐을 때에야 일어나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무대—곰의 집 마당. 큰 장작 토막, 나무 울타리, 곰이 장작을 패고 있다.

△해설—새벽부터 기다리던 깡충이네 동무들이 곰 아저씨에게로 찾아 왔어요. (노랑이, 다람쥐, 사슴 등장)

다람쥐—곰 아저씨! 곰 아저씨 우리 깡충이 못 봤어요?

곰 —못 봤다.

사슴 —곰 서방! 아 알면 좀 대주게나.

노랑이—아저씨 우리가 다 일해 드릴게 좀 말해 주세요.

곰 —너희들이 이 장작만 다 패주면 내 대주지.

다람쥐—그럼 꼭 대주시죠.

곰 —오냐. (퇴장)

△해설—이렇게 되여 깡충이네 동무들은 곰서방네 집에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노랑이 장작을 팬다.)

곰 —어디 그렇게 느릿느릿 해서야 쓰겠니? 빨리 빨리 좀 해라.

노랑이—네. (노랑이는 바쁘게 도끼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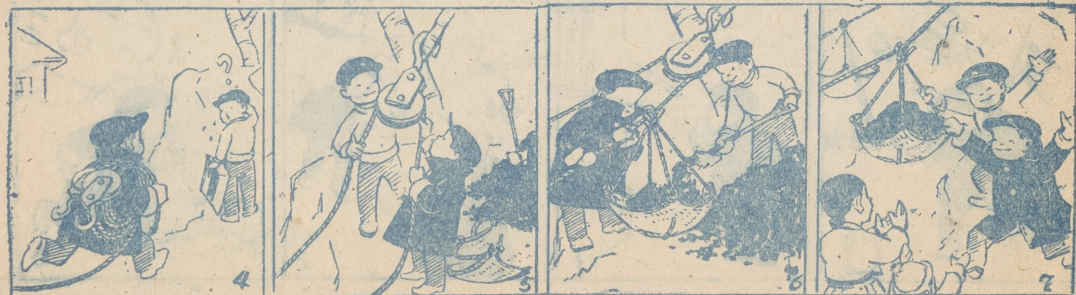
△해설—욕심쟁이 곰서방은 속으로 《옳지 이놈들도 일이나 실컷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멍하니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노랑이가 나무 름에서 쐐기를 뽑으려고 애 쓴다.)

노랑이—아저씨 이것 좀 잡아 주세요.

곰 —아니 고만 일도 못하니? 가만히 있거라. 자(나무 틀을 잡아 준다.)

노랑이—아저씨 좀 더 깊이 잡아 주세요. 더, 옳지 영차, 영차, 영차! (노랑이가 쐐기를 뽑자 곰은 나무 름에서 손을 빼지 못한다.)

곰 —아야야, 이놈의 토끼야, 쐐기는 왜 뽑아! 아이구 손이야, 아이구

노랑이—아저씨, 우리 깡충이 있는 데를 대주면 뽑아 드리죠.

곰 —아이구, 저 창고 속에… 아이구 손을 좀 뽑아다구.

사슴 —그럼 열쇠는 어데 있소?

곰 —아이구, 저 다락 속에, 아이구, 손 손이야, 손 좀 뽑아다구.

다람쥐—욕심쟁이 곰아 게으름뱅이 곰아, 우린 깡충이를 데리구 갈테다.

사슴 —그리구 깡충이가 일한만큼 밤도 가지구 가겠다.

곰 —아이구 이놈들아, 내 밤, 내 밤을 아이구, 팔이야 아이구…

제 6 경

△무대—푸른 동산, 꽃이 핀 숲과 울창한 나무, 바위.

△해설—깡충이네 동무들은 깡충이를 구원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즐거운 노래가 한참 울린다.)

노랑이—얘, 깡충아 넌 우리들 아니면 큰 일 날번 했지?

깡충이—얘들아, 난 오늘 일하기 싫어서 혼자 빠져서 놀다가 큰 일 날번 했어. 너희들이 도와 주어서 난 살아 났어. 앞으로는 꼭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일할래.

△해설—잘 보셨지요.

그 다음부터 깡충이는 동무들과 떨어진 적이 없었답니다.

푸른 동산에 사는 동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부닥칠 때마다 지혜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아주 재미 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욕심쟁이 곰서방은 나무 름에서 손을 빼지 못한채 죽고 말았대요. 놀고 먹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욕심 많은 지주, 자본가 놈들은 욕심쟁이 곰서방 같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야 말것입니다.

동무들! 우리는 깡충이네 동무들처럼 동무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재미 나게 해 나갑시다. (끝)

우화 2편

꾀꼴새와 수탉

우 봉 준

목을 길게 빼 늘이고
금빛 수탉 한 마리
온 마을이 다 들으라
《꼬끼요!》

추리 나무 가지에 앉았던 꾀꼴새가 수탉에게 던지는 말
《자넨 어쨌다고
그 거친 목소리로 기를 쓰는 건가
거 참 모를 일인 걸
나처럼 목소리나 아름답다면 또 몰라도…》

수탉은 꾀꼴새를 바라보며
궁글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네
《내가 목청을 돋구는 것은
목소리를 시위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잠든 사람들을 깨워
새 기적에로 부른다는 걸
한가한 임자네야 모를 수도 있지.》

너구리 형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늙은 너구리-그에게는
젊고 팔팔한 두 아들 있었네
저희들 끼리도 신의 두터운 두 아들이

한 번은 늙은 너구리 나드리 가며
두 아들 앉여 놓고 신신 당부하는 말
《집을 잘 봐야 하느니라.》

늙은 너구리 길 떠난 후
형은 집 안에서, 아우는 문 밖에서
아버지의 분부 대로 집을 지켰네

한나절이 기울자 형은 생각하기를 《아우가 밖에서 지키는 데야
도적이 얼씬이나 할라구》
아우를 믿으며 쿨쿨
한 나절이 기울자 아우는 생각하기를 《집안에 형님이 계신데야
도적이 무슨 수로 기여든담.》
형을 믿으며 소르르 꼬빡

땅거미 질 때야 깨여 난 형제
그들은 보았드라네 활짝 열려진 고'간 문을
도적이 설거질해 간 뒤'자리를
《얘야, 난 널 믿고 좀 잣을 뿐인데…》
《아니, 난 형님 믿고 좀 졸았을 뿐인데요…》

☆

믿는 건 더 없이 좋은 일
하지만 너구리네 형제처럼
이런 식으로 《믿는》건 그 어떨지…

이 원쑤를 갚아 다오

안 전일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 살인 강도 도당들은 《보육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모를 잃은 불쌍한 고아들을 더려 끌어다가는 짐승처럼 부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아들의 피를 뽑아 팔아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미국이나 남미주의 여러 나라 자본가나 농장주놈들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경상북도 대구시 성광 《보육원》에서 있은 일입니다.

이곳 《보육원》에서도 끌려 온 고아들에게 추운 겨울에도 다 해진 홑적삼을 입히고 새알만한 깡보리밥 한 덩이를 먹이고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이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헐벗고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아들을 매일 채찍질하여 힘에 겨운 로동에 내 몰아 돈벌이를 하는가하면 심지어 고아들의 피까지 뽑아서 팔아 먹습니다.

토요일이 오면 원장놈은 고아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자선 병원〉(미제 승냥이들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니 빨리 차비를 하라!》고 큰 소리를 치군 합니다.

《자선 병원》으로 끌려 간 고아들은 체중, 신장, 시력 등 검사를 마치고 내'과 치료실에 들어 갔다 나오기만 하면 비틀거리며 쓸어지군 하였습니다.

얼마 전 토요일에 있은 일입니다. 이 날도 고아들은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보육원》에서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 오던 순철이는 차례가 되자 무거운 걸음으로 내'과 치료실로 들어 갔습니다. 벌써 그는 이방엘 몇 번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방안에서는 미국 녀의사 메리가 《진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우 같이 생긴 메리는 순철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척 하더니 《오! 매우 건강합니다. 피를 검사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린애 팔만큼 굵은 주사기로 순철이의 붉은 피를 뽑아 냈습니다.

허약한 몸에 피까지 뽑힌 순철이는 눈앞이 아찔해서 그자리에 쓸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무들에게 이끌려 《보육원》으로 돌아온 순철이는 며칠 동안 정신 없이 앓던 끝에 자기 동무 경식이에게 한장의 편지를 남기고 그만 숨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경식아 나는 미국놈과 원장놈에게 피를 빨리고 죽는다. 미국 승냥이놈들과 원장놈은 우리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다. 나는 원쑤를 갚지 못하고 죽는다. 경식아! 꼭 이 원쑤를 갚아 다오!》

편지를 보는 경식이를 비롯한 고아들의 눈에서는 원쑤를 갚고야말 복쑤의 불'길이 타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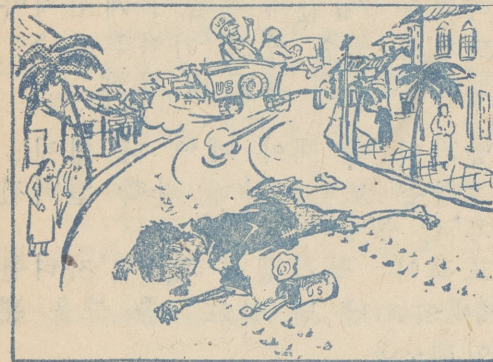
쓸어진 순철이 곁으로 모여 드는 고아들마다 두 주먹을 부르쥐였습니다.

고아들은 원장실 앞에 버티고 앉아서 《쓸어진 동무의 원쑤를 갚자!》,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고 웨쳤습니다.

고아들의 힘찬 웨침 소리에 질겁한 원장놈은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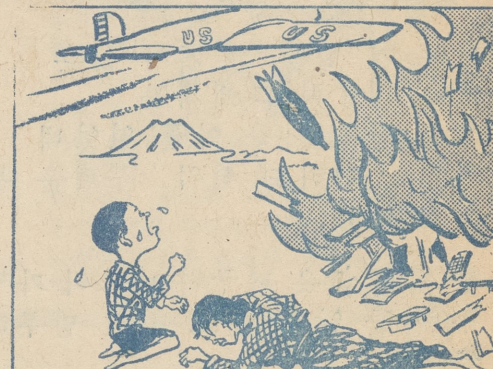
한편 《대구 시청》에 몰려 간 고아들은 《굶주리는 우리에게 밥을 달라!》, 《우리들의 피를 뽑아 팔아 먹는 원장놈을 잡아 갇우라!》고 웨쳤습니다.

미국 승냥이와 원장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에 떠는 원아들의 거세찬 웨침소리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 박 정희 도당들의 가슴팍을 찌르는듯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1) 미국놈들은 자기 나라 땅도 아닌 중국 대만을 강점하고 거기서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처럼 주인 노릇을 하며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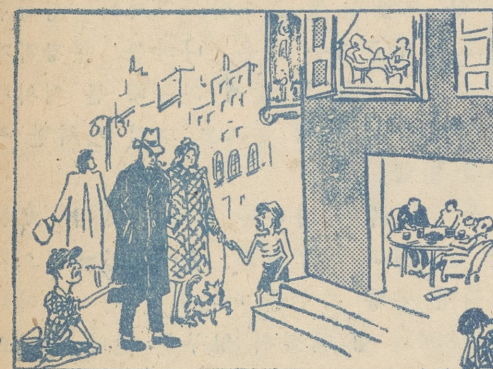
작년 11월 대북 중산부 거리에서 미국놈들은 자동차로 아홉살 나는 호 원달·소년을 깔아 눕히고 너털 웃음을 치며 달아나버렸습니다.

대만에서는 하루에도 이렇게 미국놈들의 차에 깔려 죽는 아이들이 평균 수십 명씩이나 된다니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미국놈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가증스러운 승냥이놈들입니다.

(2) 일본에 와 있는 미군놈들도 농민들의 땅을 다짜고짜 빼앗아 자기들의 비행장과 땅크 훈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훈련을 한다면서 아무 데나 폭탄을 던져서 농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니가다현에 사는 나까무라라고 하는 소년의 집도 이렇게 땅을 빼앗기고 집마저 불태웠습니다.

게다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땅도 빼앗기고 집도 불타버려 살'길이 없는 나까무라에게서 누이 마저 빼앗아 브라질의 농장주에게 팔아 넘기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아가 된 나까무라는 오늘도 이거리 저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3) 지금 라틴아메리카에는 공부할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거지 아이들이 1,500만명이나 된답니다.

특히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의 거리에는 매일 먹지 못하여 페병에 걸려 죽는 아이들이 5~6 명씩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극장이나 영화관, 식당 입구에 섰다가 손님들에게서 동냥을 빌고 있으며 밤이면 창고나 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덮고 잔답니다.

브라질에서도 수십만명의 소년들이 미국 농장주들의 채찍에 매를 맞아 가면서 노예처럼 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예로 팔려 간 리 경수라는 소년을 비롯하여 170 여 명의 남조선의 고아들도 있습니다.

리 경수 동무는 부산에 있는 《성모 애육원》에 있었는데 파리티노란 미국 장교놈이 《양자》로 기르겠다고 데려 가서는 이곳 농장주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사람을 팔고 사고하는 미국놈들과 남조선의 살인 강도놈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쓰러버려야 합니다.

저 산'줄기는 어데서 뻗었을까?

—지리—지도 학자 김 정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

《저 산'줄기는 어데서 뻗었을가?》

서울 남대문 밖 만리재 자그마한 집에서 태여 난 김 정호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곧 잘 이런 의문을 품었다. 나이 자람에 따라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하여 그는 서울 부근의 산들을 넘어 보았다.

산을 넘으면 들판이 펼쳐졌고 들판 끝에는 또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산'줄거를 따라 가면 갈수록 산은 끝없이 잇닿아 있었다.

《대체 이 산'발은 어데서 시작되며 어데가 끝일가? 나의 조국 땅에는 이런 산발들이 얼마나 있으며 어떤 모양으로 뻗어 있을가? 들판은 얼마나 될가?》

선생은 우리 나라에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지도들을 구해다가 모조리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선생은 가장 평판이 높은 지도인 《팔도도》 조차에도 자기가 넘어 본 산들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을들의 모양과 위치가 정확히 그려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조국의 산봉오리 하나 강'줄기 하나라도 그것을 정확히 그린 지도를 만들 수 없을가? 정확한 지도만 있다면 사람들이 각지를 앞뒤'집 드나들듯 왕래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평안도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던 남쪽의 감과 귤을 가져다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압록강 상류의 심심산'골에서도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를 갖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길주 명천의 가는 베는 제주도 사람들의 옷감으로도 될 것이다. 어찌 그것만이겠는가 국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정확한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는가! 내 손으로 그런 정확한 지도를 만들자.》

선생은 우리 나라와 외국의 지리 책들을 연구했고 지구의를 손수 만들었으며 정확한 측량 기구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834년 집 재산의 일부를 팔아 려비로 사용하면서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두루 답사 측량하기 시작하였다.

낯선 산과 들을 홀로 걸어 다니기란 몹시 힘든 일이였다. 더우기 그 고생이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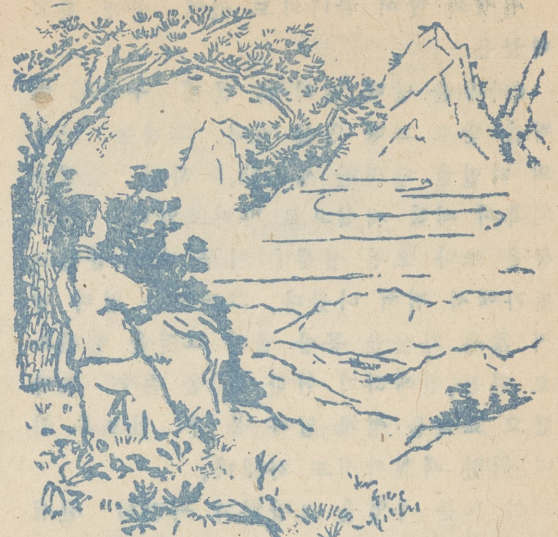
설한풍이 휘몰아 치는 추운 겨울에도 봉건 량반 놈들이 선선한 다락에서 낮잠을 자는 한 여름에도 선생은 하루도 쉬지 않고 험한 산'발을 넘나 들었다. 어떤 때는 인가가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며칠씩 굶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의심을 받고 관가에 잡혀 가 심문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도 선생의 불타는 애국심과 탐구열을 식힐 수는 없었다.

심한 고통과 악독한 고문에도 선생은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다시 조국 답사의 발'걸음을 내딛군 하였다.

가자! 정확한 조국의 지도를 만들기 전에는 한 시각이라도 쉴 수 없다. 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내야 한다.

이리하여 선생은 남으로는 남해의 많은 섬들과 제주도까지, 북으로는 압록강, 두만강 연안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갔고 백두산 꼭대기까지는 두 번이나 올랐다.

이렇게 온갖 곤난을 이겨 가며 선생은 드디여 우리 나라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 내였다. 그것이 《대동 여 지도》이다. 이 지도는 162,000 분의 1 축적을 사용하여 함북도 온성으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335 개 군을 22 개의 부분 지도 첩본에

그려 넣었다. 이 첩본들을 맞추어 놓으면 실로 33 m^2의 커다란 조선 지도로 된다.

이 지도에는 11,600 가지의 표식으로 산'줄기, 강, 도시, 마을, 성, 창고, 나루터, 섬, 고개, 다락, 절, 토산물, 군사 시설, 도로… 등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 위치나 거리 등도 대단히 정확하게 되여 있다.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한 선생은 춤 출듯이 기뻐하면서 관가로 달려 갔다.

《27년 동안 조국을 답사하여 조선 지도를 만들었나이다. 이제 그것을 종이에 박아 내야 할 터이온즉 나라에서…》

줄넘기 운동

줄 넘기 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참을성을 키워 주며 다리 근육을 발달시킨다. 뿐만 아니라 심장이 잘 활동하도록 하여 주며, 폐활량 (폐 속에 공기가 들어 가는 량)을 커지게 하여 몸 단련에 아주 좋은 운동의 하나이다.

줄 넘기 운동은 한 번 뛰여 줄 한 번 넘기, 한 번 뛰여 줄 두 번 넘기. 팔을 바꾸면서 줄 넘기, 팔을 모아서 줄 넘기, 발을 바꾸면서 줄 넘기, 앞으로 나가면서 줄 넘기, 뒤로 물러 서면서 줄 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1.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할것, 특히 신체의 각 부분과 관절 운동을 잘 해야 한다.

2. 줄에 쇠줄을 감거나 손잡이에 쇠를 박아서는 안된다.

3.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쉬였다가 하군 해야 한다.

4. 줄 넘기를 할 때는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선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건 관료 배들은

《비용을 달란 말이지, 글쎄 누구의 허락을 맡고 그런 일을 했나. 그대는 나라의 비밀을 탐지한 셈이야.》하며 선생을 의혹이 서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관료들을 쏘아 보던 선생은 아무 말도 안하고 관가에서 뛰쳐 나왔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몽땅 팔아 그것을 밑천으로 판본(인쇄하기 위한 판)을 손수 조각했고 표식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색칠까지도 하였다.

이 모든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생의 따님은 일심으로 아버지의 위업을 도와 드렸고 선생의 부인은 광주리 장사를 하면서 집안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본래 구차한 살림에 조금 있던 재산마저 팔아 지도를 만드는 비용으로 써 버렸던 것이다.

피어린 고심 끝에 첫 판본이 나왔는데 이 해가 바로 1861년이다. 선생은 가족들과 함께 $33m^2$나 되는 지도를 펼쳐 놓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7년! 생각하면 긴 세월이였지!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낸다면 못할 일이 세상에는 없고 모를 일이 없는 법이다. 인제야 조국과 이 나라 인민들을 위하여 일을 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이웃들은 정성어린 축하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생의 빛나는 공로를 치하하였다.

선생은 여러 벌 인쇄한 지도 중에서 제일 깻깻이 나타난 지도 한 벌을 나라에 바쳤다. 한편 선생은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동지지》(조선 지리라는 뜻—15책)라는 지리 책을 썼다.

이 책은 1864년에 완성됐는데 이전의 그 어느 지리 책보다도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에 아주 쓸모 있는 지리 책이였다.

어느 날 갑자기 관가에서 선생을 불렀다. 선생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곧 관가에 나갔는데 관가에서는

《네가 이렇게 자세한 지도를 그린 것은 나라의 기밀을 세세히 조사하여 그 어떤 적에게 넘겨 주려고 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니 너는 나라에 그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고 하면서 선생을 옥에 가두었다. 선생과 선생의 이웃들은 지도를 만들게 된 참뜻을 세세히 일러 바치고 선생을 놓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썩을 대로 썩고 어두울 대로 어두운 봉건 량반들은 그 참뜻을 리해할 수도 없었고 또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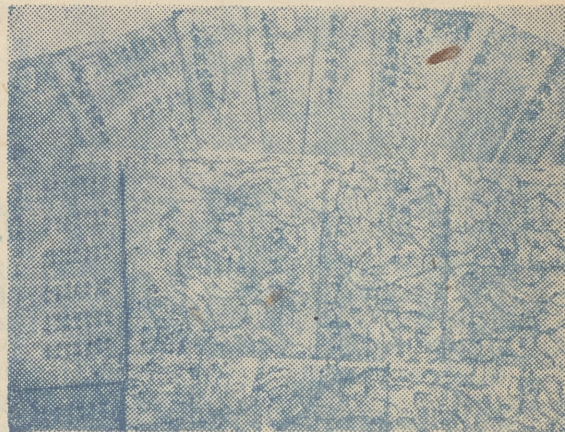
선생은 옥중에서 아깝게도 돌아가셨다. 그러나 선생의 고귀한 애국심과 탐구의 정열은 선생이 만든 《대동 여지도》, 《대동 지지》와 함께 오늘 우리의 귀중한 유산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나라 사람들의 크나큰 자랑으로 될 것이다. (리 자응)

(대동여 지도의 일부)

그림 이야기

고지의 별

조국 해방 전쟁이 가렬하던 1951년 6월 8일 분대장이던 고 세필 영웅 형님은 752 고지 전투에서 한개 분대를 가지고 수'적으로 많은 적들과 싸웠다. 그는 여섯 차례에 걸치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와 고지를 지켜냈다.

그리하여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다.

1951년 9월 1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형님의 전투 공훈을 높이 찬양하여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1) 고 세필 영웅 형님은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여나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지주의 땅뙈기를 빌어서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살림에 공부 할 길 없고 일을 하고 또 해도 가난에 쪼들리는 살림은 어린 마음에도 일제와 지주놈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

(2) 세필 형님은 《지주놈의 배를 불리울 농사나 꾸벅 꾸벅 지어 줘서 뭘 하느냐》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정든 고향을 떠나 살'길을 찾아 이리 저리 다니게 되였다.

혹시 살'길이 있을가하여 형님은 흥남 공장에도 들어가 일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고된 로동에 시달렸을 뿐 천대와 멸시는 매 일반이였고 살'길은 더 막막 해지기만 했다.

(3)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들이 도사리고 앉아 있는 조선 땅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다. 형님은 행여나 동북으로나 들어 가면 나을 가하여 두만강 기슭 일대를 돌아 다녔다.

갈기 갈기 해진 홑바지 적삼에 짚신짝을 끌며 다니던 형님은 일본 경관놈에게 붙들리여 모진 매를 맞고 락산 광산에 《보국대》로 끌려 가 로동을 하였다.

(4) 드디어 8. 15 해방이 되였다.

정든 고향에 돌아와 토지까지 분여 받고 땅의 주인이 된 형님은 그만 산이라도 옮기고 하늘에라도 솟아 오를 듯이 기운이 났다. 형님은 분여 받던 날 밤에 감격과 기쁨으로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집 뭇으로 차례진 논으로 달려 나가 보람 있게 살아 나갈 앞날을 생각하면서 논 머리에서 밤을 새웠다.

(5) 형님은 있는 힘을 다해 농사를 지었다. 해마다 남보다 거름도 많이 장만해 냈고 파종도 먼저 했다. 김도 남이 세벌 매면 네벌 다섯벌 맸다. 형님은 농사를 착실이 짓는 길만이 땅을 준 당과 정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살림은 나날이 늘어만 가서 첫 해에 벌써 두 살짜리 송아지를 사 맸던 것이다.

(6) 1950년 6월 25일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이 전쟁의 불을 지르고 승냥이처럼 달려 들었다.

(안된다! 다시는 네놈들에게 내 땅, 내 조국, 나의 행복과 청춘을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형님은 자진하여 인민 군대에 탄원해 나섰다.

(7) 1951년 6월

고 세필 분대장은 자기 분대를 거느리고 부대의 반격이 개시 될 때까지 752 고지를 끝까지 고수하라는 전투 명령을 받았다.

고 세필 분대장은 전투원들을 이끌고 752 고지에 이르러 적들이 얼씬도 못하게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8) 이틀 동안이나 적들은 전차와 젯트기의 엄호하에 쉴 새 없이 공격 해 왔다. 찌는 듯한 더위와 네 차례에 걸친 적의 공격을 물리친 전투원들의 목에서는 겨'불 내가 났다. 고지는 흙 먼지와 연기로 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그 속에서도 형님은 부상 당한 다리를 끌며 전우들의 상처를 싸매 주었고 전우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자기가 직접 감시 초소에 나가기도 했다.

(9) 적들은 다섯 번 째 공격을 해 왔다. 포 사격과 젯트기 12 대의 엄호하에 전차 세대를 앞 세운 적 두 개 소대가 비탈진 언덕을 에돌아 기여 오르고 있었다. 치렬한 전투를 앞두고 민청 분조 회의가 열렸다. 분대장은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님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엄숙히 읽었다. 분대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해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752 고지를 사수할 굳은 맹세를 다지고 정성들여 맹세문에 서명하였다.

(10) 치렬한 전투는 계속되였다. 불과 5 명의 전우들과 2 개의 수류탄 밖에 남지 않았다.

분대장은 기여 오르는 적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불벼락을 들 씌우기 위하여 전 창주 전사에게 분대 지휘를 맡기고 황 인선 전사와 함께 적의 눈에 띄우지 않게 고지 중턱으로 기여 내려 갔다. 두 형님은 적의 시체에서 옷을 벗겨 자기의 군복 우에 덧 입고 적들이 몰려 오는 쪽 바위 뒤에 숨었다.

(11) 기여 오르던 적들이 분대장이 숨은 바위를 지나 갔다. 이 때였다. 분대장은 황 인선 전사와 함께 놈들의 등을 향해 기관단총을 련발로 갈겼다. 불의에 습격을 당한 적들은 무리로 쓸어졌다.

분대장과 황 인선 전사는 기여 오르는 적 땅크들 우에 번개 같이 뛰여 올라 뚝크를 열고 수류탄을 힘껏 집어 던졌다. 적 땅크 두 대가 삽시에 불덩이가 되고 말았다. 분대장은 재빨리 또 다음 땅크에 뛰여 올라 그놈도 보기좋게 까부셨다.

(12) 이 때 불행이도 분대장 형님은 적탄에 맞았다. 깜빡 깜빡 정신이 잃어지군 했다. 그는 간신히 고지에 기여 올랐다.

고지에는 적의 시체가 너저분히 깔려 있었다. 치렬한 육박전에서 분대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 고지를 사수 해 냈다.

혼자 남은 분대장은 이미 여섯 군데나 부상을 입었었다.

(13) 분대장은 기여 다니면서 적들의 시체에서 네 개의 수류탄을 주어 모았다. 그리고 기관단총과 날창을 꽂은 보병총을 갖추어 놓고 끝까지 고지를 사수 할 굳은 결의를 다졌다.

(14)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적들은 여섯 번 째 공격을 시작했다.

분대장은 전호 밖으로 나가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약 20m거리까지 적들을 접근시킨 다음 불벼락을 퍼 부었다. 적들은 무리 죽음을 당하였으나 계속 기여 오르고 있었다. 고지를 지켜 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닥쳐 왔다. 분대장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경기를 휘두르며 앞장 서 올라 오는 놈을 총탁으로 단숨에 까부시고 경기를 빼앗아 적들을 쓰러눕혔다.

(15) 사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고지를 지켜 낸 분대장의 마음은 한 없이 기뻤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분대장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원하려 온 소대장의 품에 안겨 있었다.

분대장은 가슴에서 피에 젖은 당증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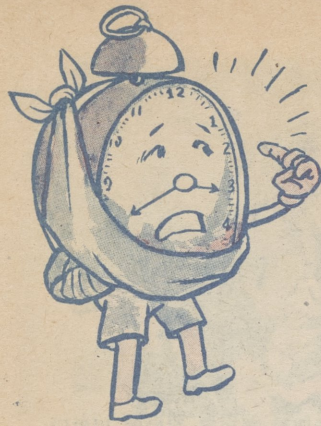
《소대장 동무 이 당증을 당 중앙 위원회에 전해 주십시요, 조선 로동당의 전사 고 세필은 끝까지 잘 싸웠다고요!》

동요 **인민 군대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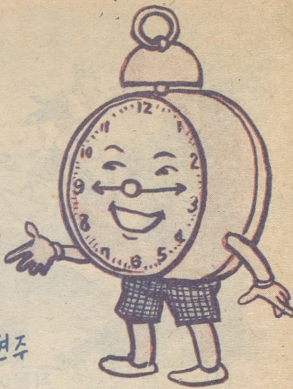
인민 군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초소에 서 있는 고마운 아저씨
밤 밝혀 원쑤놈들 지키고 섰겠죠
우리의 포근한 밤'잠을 지키겠죠

인민 군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빛나는 혁명 전통 이어 받아서
미제 원쑤 무찔러 조국을 지킨
세계에 이름 떨친 영웅의 군대

머리 우에 반짝반짝 오각별 빛나는
인민 군대 아저씨 참말 좋아요
나는요 소리 높이 온 세상에 자랑해요
영웅 나라 우리의 인민 군대 만만세!

함남도 인흥군 련동 중학교
2 학년 1 반 조 택현

탁상 시계들이 주고 받는 말

최 옥 선

그림 남 현주

아빠트 거리에 있는 한 시계방 작업대우에 두 개의 탁상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방에서 우연히 만나게된 두 탁상 시계는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순길네 시계가 아니냐?》

《네가 누구더라?》

《아니…네가 나를 몰라… 너 나하구 한 공장에서 태여나서 백화점에도 같이 와 있지 않았니.》

《그래? 그런데 난 너를 못 알아 보겠구나! 너 지금 어디에서 사니?》

《야 참 어디서 살긴 어디서 살어, 네가 살고 있는 아빠트 한 현관에서 살지뭐, 재 작년 5. 1절에 순길이 아버지랑 우리 만호 아버지랑이 상금 탄 돈으로 우릴 백화점에서 사 들고 나와 아빠트 현관에서 헤여지지 않았니! 그때 넌 누가 시간을 잘 마치나 내기까지 하자구 하구서두…》

《옳아옳아 그러구 보니… 아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못 쓰게 됐니.》

그때야 순길이네 시계는 깜짝 놀라며

유리가 다 깨지고 바늘이 온통 떨어진 만호네 시계를 쓰다듬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말은 해서 뭘 하겠니 주인을 잘 못 만난 탓이지.》 하며 만호의 시계는 그만 눈물을 짓는 것이였습니다.

《만호가 뭣때문에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냐, 날마다 학교에 갈 시간, 공부할 시간을 알려 주며 좋은 일만을 해 주는데, 우리 순길인 날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

《만호도 처음엔 일과표를 짜 놓고 시간을 꼭꼭 지키면서 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 아침 저녁 나를 바라보고는 시간이 되면 복습을 하구 집'일도 잘 도왔단다. 그러기 너희 순길이 하구 누가 시간을 더 잘 지키나 내기까지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트 마당 청소도 하군 했단다. 그리군 내 앞에 와서

〈난 순길이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을테다. 너도 나를 잘 도와야해〉 하군했어, 그러던 애가 요샌 딴판이 되지 않았겠니.》

만호의 시계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늘 시간을 잘 지키던 만호가 하루 저녁은 글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 오더구나, 복습 시간이 지나고 잘 시간이 됐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글쎄 11시가 넘어 들어 왔는데 보니까 옷과 손발을 몽땅 어지럽혀 가지구 오질 않았겠니.

어디서 실컷 장난하다가 온 모양이야! 이런 날이 차츰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공부가 밀리구 계획했던 일두 밀리군해서 얼마 후엔 일과표도 어디다 다 집어 던졌는지 몰라.》

《공부 잘 하라고 너를 선물한 만호 아버지가 섭섭해 하시겠구나.》

《그럼 지난 일요일 아침엔 만호가 한참 썰매를 타려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만호의 일과표를 들여다 보시며 〈만호! 요즘에도 일과표대로 생활하겠지,

일과표대로 3시가 되면 들어와 공부를 해라!〉하고 말씀하시지 않겠니.

만호는 〈네〉하고 대답하더니 썰매 탈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 어느 새 벌써 밖으로 달려 나갔단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종일이라도 탔을거야, 그래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던지 복습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들어 왔더구나 그러더니 슬그머니 내 바늘을 30분이나 뒤로 돌려놓고 분주히 복습할 차비를 하잖겠니,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 눈치를 챈 만호는 또 나가 놀다가 밤 늦게야 들어 와 그저 잠 들어 버리고 말았어. 이튿날 아침에는 그렇게 깨우는 데도 맨 나중에야 일어난 만호는 〈어머니 내 샤쯔, 어머니 내 양말〉하고 여기 저기에 막 벗어 던졌던 내의랑 양말을 덤비며 얻어 입고 학교엘 갔단다. 저녁이 되자 집 시계가 떠서 아침에 늦어졌다고 온 식구가 떠들석하며 나를 욕하지 않겠니, 만호 아버지는 〈시계가 왜 갑자기 떠졌을가?〉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는 것이였어, 그런데 이때 만호가 벌떡 일어나 나를 잡아 흔들며 〈어머니 나도 오늘 아침 학교가 늦었어요…이놈의 시계 왜 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할가〉하고 나를 큰 소리로 욕하질 않니.

글쎄 제가 내 바늘을 꺼꾸로 돌려 놓군 나를 도리여 욕하고 있으니 나는 말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만호는 시간을 맞추어 놓는다고 한참 바늘을 꺼꾸로 돌렸다 바루 돌렸다하더니 그제야 전날 바늘을 뜨게 돌려 놓은 생각이 났던 모양인지 그만 얼굴이 벌개지며 그 자리에 우둑허니 서 있겠지, 만호의 모양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만호가 한 일을 짐작하신 모양이야.

만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 방학 때는 내가 기상 종을 울리면 시끄럽다고 나를 정신 없이 흔들어 주고 바늘을 마음대로 돌려놓군 했단다.

만호의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부터 학업 성적은 말이 아니야, 늘 3 점만 맞더구나. 그리구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구 말이야.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 시간두 제대로 알리지 못했더니 오늘 이 시계'방에 데려다 주었어. 나를 낳은 공장 아저씨들이 자꾸만 생각나, 아저씨들은 밤을 새워 가며 있는 힘을 다해 나를 튼튼히 만들어 주었댔는데 내 몸이 이 모양이 되였으니 아저씨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섭섭해 할가.》 이 말을 들은 순길이의 시계는 놀라는 얼굴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직도 그런 아이가 있단 말이냐, 아 지금 전체 소년단원들이 천리마를 탄 근로자 아저씨들을 따라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나서구, 더우기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니, 금년엔 또 6 개 고지 점령에 나선 근로자 아저씨들을 힘껏 도우며 아저씨들 못지 않게 공부를 잘해서 모두 우등 최우등생이 되기 위해 나섰는데… 그런데 아직 그런 아이가 있다는건 참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던 순길이의 시계는 순길이는 만호와는 비할 수 없는 좋은 아이라고 자랑을 느려 놓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순길 동무는 어김 없이 일과표 대로 복습시간, 집'일을 돕는 시간, 쉬는 시간을 꼭꼭 지키고 있어, 어제 일요일 하루 생활만 봐도 알 수 있어, 일과표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고 집'일을 돕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했단다. 순길이는 복습하면서 모를 것이 있으면 수첩에 꼭꼭 적었다가 꼭 알고야 그날을 보낸단다. 어제도 복습을 끝내더니 수첩에 적은 모를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책도 읽고 생각해 보며 알아 내기도 하고 동무들과 선생님을 찾아 가 알아 오기도 했단다.

순길이는 저녁에는 자기가 하루 배운 것을 하나하나 복습을 하고야 잔단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낮부터 저녁까지 길게 복습 시간을 잡아 가지고 일 주간 배운 문제를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실습도 한단다. 그래 어제 순길이는 물을 끓여가며 실험도 해 보며 전기 종도 만들었어, 순길이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해 놓은 일과

표대로 시간을 꼭꼭 지키고 있어. 어제는 아주 먼곳에 어머니의 심부름을 갔단다. 순길이가 〈오늘은 하는 수 없이 복습 시간이 늦어 지겠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에 거의 되여 숨이 차서 달려 들어 오지 않겠니, 이렇게 시간을 꼭꼭 지키며 공부하는 순길이는 늘 5 점만 맞는단다. 그리구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 태엽도 제 시간에 따따 틀어 주구 기름을 자주 쳐 주구 어제는 나를 분해 소제를 받아야 기운이 나서 잘 돌아 간다구 이 시계'방에 데려다 주었단다.》

순길이네 시계는 신이 나서 똑딱똑딱하며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만호의 시계는 부러운 눈으로 순길이네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시계'방 아저씨는 두 시계를 잘 수리하여 진렬장에 내 놓았습니다.

이때 마침 소년단원들이 지나가다가 진렬장 앞에서 발을 멈추고 시계를 보더니 《야! 시간 늦겠다. 빨리 가자!》하고 달려가는 것이였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따라가 살았으면 얼마나 보람 있게 살 수 있겠니, 만호를 따라가면 또 인차 몸이 상하게 될거야.》

만호네 시계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멀리서 순길이와 만호가 손을 잡고 시계'방으로 향해 오는 것이였습니다.

《야! 어떻거면 좋을가…만호가 오는구나.》 만호네 시계는 가슴을 들먹이며 걱정에 찬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길이와 만호가 달려 오더니 《야! 우리 시계들이 멋있게 돌아 가는구나!》하고 좋아서 손'벽까지 쳤습니다.

《난 이 시계를 찾아다간 정말 잘 간수할래, 시간도 꼭꼭지키면서 공부도 잘할테야, 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구 깨달았어, 시계를 돌려 놓아 온 식구가 아침에 늦어지게하구 시계를 고장 낸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만호가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래 우리 꼭 오늘 결심한대로 하자.》 순길이의 말이였습니다.

순길이와 만호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 오는 두 탁상 시계는 《인젠 우리 두 시계가 좋은 주인을 위해 보람 있게 살게 되였구나, 1 초도 어김 없이 시간을 잘 알려주어 주인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자.》고 이야기하면서 신이 나서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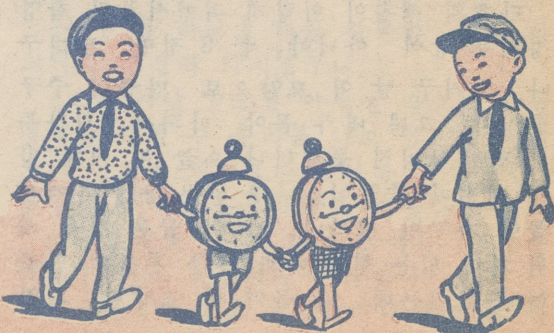
이것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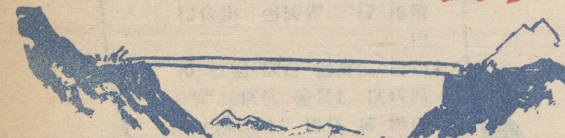
물체가 보이는 거리

보통 눈밝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분간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 물건까지의 거리를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사람들이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외따로 서 있는 집	5 km
집의 창문	4 km
지붕의 굴뚝	3 km
사람	2 km
도로 표식표	1 km
지붕의 기와	210 m
사람의 얼굴	160 m
사람의 눈	60 m

우리 함께 즐깁시다

수수께끼 동화

나그네와 외나무 다리

옛날 한 나그네가 여우 한 마리와 닭 한 마리 그리고 쌀 한 자루를 가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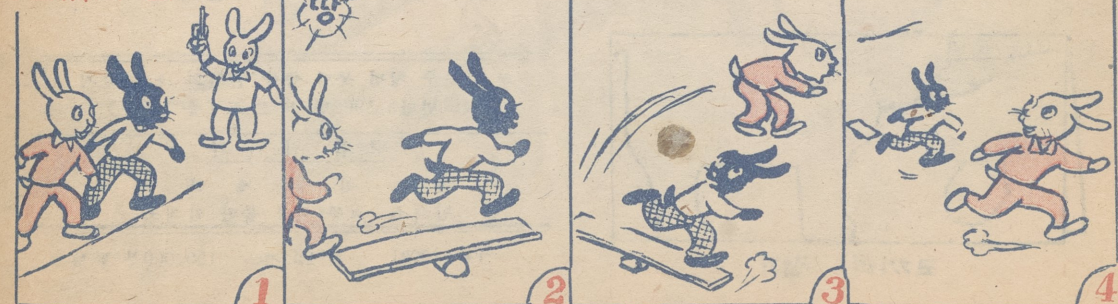
가다가 외 나무 다리를 만났는데 이 다리는 무엇이건 한 번에 한 가지씩 밖에는 못 가지고 건너 가는 다리랍니다.

나그네는 매우 딱하게 되였습니다.

자 쌀을 먼저 가지고 건너 가자니 여우가 닭을 잡아 먹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우를 먼저 가지고 가자니 닭이 쌀을 먹을 것이였습니다.

나그네는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이 세 가지 물건을 하나도 손실 없이 다 가지고 건너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손실 없이 다 가지고 갔을가요?

동무들 생각해 보세요!

길 찾아 나오기

다음의 그림과 같은 꽃밭이 있습니다.

한 번 간 길은 다시 가지 말고 한 바퀴 돌아 나와 보시요.

(그림)

코끼리 무게 달아 보기

여기에 집채만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의 무게를 달아야 겠는데 저울이란 몇 십 키로그람 밖에 달지 못하는 작은 저울이 있을 다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의 무게를 달아 볼 수 있을가요?

힌토끼의 꾀

수수께끼

1. 온 몸에 귀 하나만 달린 것이무엇 입니까?
2. 배는 뒤로 붙고 등은 앞으로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3. 오색 옷을 입어도 다 검어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그리기

다음의 동그라미들을 붓을 떼지 말고 단번에 그려 보십시요.

(그림)

현상 문제

회'가루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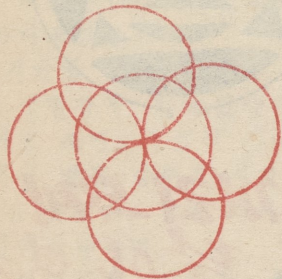
영철이네 학교에서 위생 문화 사업을 위하여 열 되의 회'가루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이 열되의 회'가루를 닷되씩 두 분단에서 나누렵니다.

그런데 그릇이란열 되들이 말박과 일곱 되들이와 세되들이 되'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릇을 쓰지 않고 이 세가지 그릇을 가지고 닷되씩 꼭 같이 나누자면 어떻게 하면 될가요?

수수께끼 해답

1. 바늘입니다
2. 사람의 다리입니다
3. 그림자입니다

종이 접기 놀이

다음의 그림을 보고 종이로 사슴과 노루,코끼리를 접어 봅시다

실선을 베여 내고 점선은 꺾어서 만듭시다. 그리고 귀와 뿔은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사슴과 노루 접기

코끼리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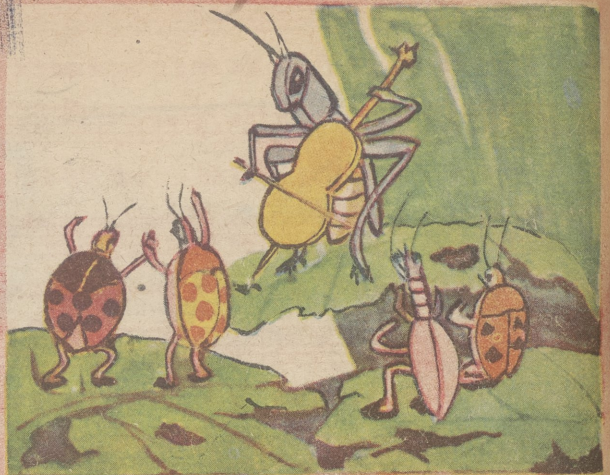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2 호 (총 148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30031 값 25 전 · 150,000부 발행

양키 쫓는 노래

지광근 시
김필성 곡

«새 농군 부대» (2)

박춘삼 그림

1 옥수수, 감자-《아저씨! 큰 일 났어요, 벌레들이 달려 들었어요》
농민-《뭐?! 벌레들이? 그놈들을 몽땅 없애 치워야지》 논밭을 돌아보던 농민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지요.

2 《에헤야 우리 세상 좋을시구, 옥수수잎도 맛있지만 감자 잎은 더 맛 있네. 냠냠》
그 사실을 모르는 메뚜기, 늦벌레, 무당 벌레들은 제 세상을 만났다고 춤을 추며 돌아갔습니다.

3 밭에서 돌아 온 농민은 곧 농약들과 의논했습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애치울가?》
농약-《제가 그놈들을 족치겠어요》

4 고요한 달밤입니다. 농민은 농약들과 함께 곡식을 해하는 벌레를 죽이는데 떨쳐 나섰지요.
메뚜기 늦벌레-《아이구! 아이구!》

5 잡초와 해충이 없는 논 밭에서는 곡식들이 싱싱 자랐습니다. 농민-《참 장한 걸》
벼, 옥수수-《500만톤은 문제 없지요》

6 가을이 왔다. 농민-《농약! 자네는 우리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시켰네!》
농약-《뭘요, 이게 다 로동당의 덕분이지요》